

# 제목 : 꿈자리는 관촬으셨나요?

미디어기술콘텐츠 학과

201620807 안창신

기획 의도 : 꿈을 영화나 연극과 같은 하나의 콘텐츠로  
해석해보았다.

- 사람은 잠을 자고 꿈을 꾸다. 이는 하나의 신체 활동으로서 그 원인이 분석된다.  
하지만 상상을 더하여, 우리가 꾸는 꿈을 만드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꿈의 내용은 영화나 드라마의 장르처럼 다양하다.  
우리가 꾸는 꿈은 한편의 영화와 같을 수 있고, 과거의 기억을 이끌어내는  
타임머신일 수도 있다. 이러한 꿈을 하나의 콘텐츠로 해석해보았고 이를 만들어내는  
엔터테인먼트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장르 : 드라마, 코미디

1. 드라마 -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드라마 장르로 설정하였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겪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거나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로 설정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낼 것이다.
2. 코미디 -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코미디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상사와의 관계 및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창작의 고통 등을 코미디로  
표현하여 독자들이 드라마 장르에서 느낄 수 있는 무거움을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 매체 : 웹툰

1. 영상물로 하였을 때, 드라마 장르의 지루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 가볍게 볼 수 있는 이야기로 하고자 웹툰으로 설정하였다.
3. 사람마다의 꿈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웹툰의 옴니버스식 구성도 반영한다.
  - 웹툰을 통해 가볍고 쉽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옴니버스식 구성을 통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 로그라인

사후세계 안, 꿈 엔터테인먼트에서 꿈을 기획하는 한 남자가 꿈을 만들며 기억을 되찾아가는 이야기.

## 특징 :

1. 꿈의 재해석.
  - 평소 잠들었을 때 쉽게 만날 수 있는 ‘꿈’이라는 소재를 재해석하였다. 꿈이 제작되는 과정을 현실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비유하여 꿈을 하나의 콘텐츠로서 제작하는 과정을 담는 세계관을 만들었다.
2.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 꿈은 누구나 꾸며, 꿈에대한 좋은 기억이나 안좋은 기억, 혹은 기억 안 나는 꿈까지 다양한 꿈들이 있다. 이야기 내에서 사람들의 기억으로 꿈이 만들어질 때, 독자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3. 이야기가 진행되는 메인플롯과 옴니버스식의 서브플롯
  - 주인공이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씩 실현된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는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지만 이야기가 진행되어 갈 수록 주인공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잊혀진 기억 중 비슷한 기억들을 조금씩 떠올린다.

## 세계관 설명

사후세계 : 사람이 죽은 후 가게되는 공간이다. 사후세계는 여러 종류가 있다. 생전의 선행이나 죄에 따라서 각각 가는 가게되는 사후세계는 다르다.

또한 ‘운명’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특별히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꿈’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인 사후세계의 ‘일자리’이다.

일을 하게 되는 이들은 그에 따른 보상으로 퇴직시에 ‘바람’을 한가지 이룰 수 있고, 환생을 하게된다. ‘바람’은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열심히 수행한 만큼 이룰 수 있는 ‘바람’의 범위도 넓어진다.

주인공은 ‘꿈’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남게되는 꿈인 ‘특별 꿈’을 기획하는 부서에 들어가게된다.

## 등장인물

인턴( 본명 : 정하람) / 29세(사망당시) / 남 / 꿈 엔터테인먼트 특별꿈부 기획과 인턴  
남자 주인공.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면서 기억상실에 걸린 채 죽게되고 사후세계로  
가게된다.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버리게 된 그는 사후세계에서 꿈을 만드는 ‘꿈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남게되는 꿈인 ‘특별 꿈’ 부서에  
들어가게된다.

하람이 들어간 기획부에서는 하람의 이름을 불러도 이름을 잊은 하람이 대답하는 경우가  
적어서 사내에서는 ‘인턴’이라고 불린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밝은 성격만은 잃지 않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해맑은 청년이며,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꿈’이 있다.

주변에서는 이러한 성격때문에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의 얼굴에 항상  
피워져있는 미소 덕분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은 적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마음 한켠에도 불안이 존재한다. ‘눈치가 없다.’라는 말이 하람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의 얼굴에도 어둠이  
드리운다. 본인조차 이유는 모르고 있으며 곧 자신의 우울을 숨기고 다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꿈을 만들어가며 조금씩 찾게되는 자신의 기억에 기쁜 감정도 느끼지만 두려움도  
다가온다.

그에게 있어 생전의 ‘하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잘못을 해왔고 누구를 상처주었는지를 알게되는 것, ‘내가 아닌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심적 불안을 지니고 있다.

꿈을 만들어가면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인 ‘꿈의 기획’을 해보고자 한다.

#### 안노을 / 26세 / 여 / 꿈 엔터테인먼트 특별꿈부 기획과 인턴

남자 주인공의 입사동기. 생전에는 여러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던 학생이었으나 가난했던 집안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과로사로 사망하였다.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사후세계에서 일하여 다음 생에 부자인 집에서 태어날 ‘바람’을 이루고자 ‘꿈’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가지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서비스 정신과 영업적인 미소는 잘 짓지만 힘든 상황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과로사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가난했던 집안에서 태어나 죽을때까지 자신의 소망을 자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차가운 성격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기인 하람의 긍정적이고 행복을 바라는 모습에는 다소 반감이 있다. 하지만 하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 심세련 / 35살(사망당시) / 여 / 꿈 엔터테인먼트 특별꿈부 기획과 대리

주인공의 상사. 생전에는 추리소설 작가였으며, 아내이자 두 쌍둥이의 엄마였다. 소설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 취재를 가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화목했던 가정과 행복했던 삶 중 갑자기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기에 사후세계로 오게되었을 때에는 패닉에 갇혀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일을 알게된 ‘꿈’엔터테인먼트 기획부 과장인 ‘오정수’가 그녀를 위로해주고 기획부로 데려온다.

생전의 추리소설 작가였던 능력을 살려 꿈을 기획하는데 있어서는 깔끔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수행해내며 부서의 에이스로 자리잡는다.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이지만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냉철하고 엄격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자녀인 ‘모리’와 ‘두리’를 행복을 위한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오정수 / **32세(사망당시)** / 남 / 꿈 엔터테인먼트 특별꿈부 기획과 과장

‘꿈’ 엔터테인먼트 기획부 특별꿈과 과장이자 ‘꿈’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도 손꼽히는 사후세계 고참이다. 생전에는 부모님의 말만을 들어 살다가 대기업직원이 되었던 사람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느끼는 인물이다.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그는 사후세계에 와서 ‘꿈’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해보게 되고 재미를 느껴 오랜기간 사후세계에 머물게 된다.

나긋나긋한 성격이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는 능력은 오랜기간 사후세계에서 일해온 것을 증명하는 듯이 정확하다.

미소를 잃지 않는 하람을 보고 재미있어 하고 있으며 그의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 꿈의뢰를 들고온다.

현재에 만족하고 있지만 언젠가 찾아올 환생과 자신의 ‘바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인물이다.

양선화 감독 / **31세(사망당시)** / 여 / 꿈 엔터테인먼트 특별꿈부 연출과 과장 및 감독  
오정수 다음으로 사후세계에 오래 남아있는 인물로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출과 과장이자 감독이다.

늘 이상한 꿈을 기획하는 오정수를 보자마자 욕을 날리지만 오정수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동료애가 있다.

송학 / **72세(사망당시)** / 남 / 꿈 엔터테인먼트 특별꿈부 촬영감독

나이가 있는 노신사로 양선화 감독 밑에서 촬영감독을 하고 있다. 인자한 선생님의 느낌으로 노신사답게 현명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회사 내에서도 상담을 잘해주기로 소문이 나있다.

심진태 / **31세 (사망당시)** / 남 / 꿈 엔터테인먼트 특별꿈부 주연배우

전생의 배우, 사후세계에서도 배우를 하고 있다. 연기실력이 뛰어나 다양한 의뢰자들이나 의뢰자의 관계자들로 분장하여 연기한다. 심진태 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있으며, 심진태는 그중에서도 에이스로 꼽힌다.

조민아 / **26세 (사망당시)** / 여 / 꿈 엔터테인먼트 특별꿈부 편집과 과장

편집부의 가장 안쪽, 늘 편집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다크서클과 편안한 트레이닝복, 헤드셋이 특징이다. 밤을 새면서 하는 혹독한 일이지만 사후세계에서도 컴퓨터를 한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김주호 / **18세** / 남 / 고등학생

같은반 반장을 짝사랑하고 있는 평범한 남학생. 성적도 평범, 교우 관계도 평범, 외모도 평범한 탓에 반장에게 다가서기를 망설이고 있다.

주목받기를 꺼려하며 대범하지 않은 성격에 나서기를 잘 하지 못하고 연애와 고백의 경험도 없다. 하지만 반장의 늘 노력하는 모습과 자신이 직접 나서는 모습에 동경을 하게 되었고 반장에게 고백하고자 지금의 자신을 바꾸려 노력하는 인물이다.

정남수 / **58세** / 건설회사 부장

사회에 지쳐가는 중년 남성. 대학교를 졸업한 딸과 군대를 간 아들, 그리고 아내를 둔 유부남으로

딸의 결혼을 앞둔 상황이다. 1년전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추억이 머릿속에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자상하셨던 아버지와 기억이 바쁜 삶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다.

또한 정년에 대한 걱정, 멀어져가는 자식들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유보미 / **9살** / 여 / 초등학생

수의사를 꿈꾸는 소녀다. 가난한 집안사정으로 인해 외할머니댁에서 살게 되었고, 주변에 동물이 많은 환경덕에 동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애완견이었던 ‘돌이’와 집에 달 돌아다니던 길고양이 ‘모래’가 죽은 이후 자신이 동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 꿈을 정하게 된다.

배정민(남편) 윤수아(아내) / 33세, 31세 / 부부

결혼을 한지 1년차에 들어선 부부. 남편인 배정민은 복지과의 공무원으로, 아내인 윤수아는 광고대행사의 대리로 살아가고 있다. 소개팅으로 만난 후 2년을 사귀고 결혼하였으나 연애했 때는 몰랐던 각자의 삶의 차이로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부부이다.

정슬기 / 29살 / 여 / 예비엄마

남편과의 결혼 후 임신 중에 있는 예비엄마이다. 아기가 생김에 신비로움도 느끼지만 임신으로 인한 심적 변화로 출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있다. 조금씩 자신의 몸과 심적으로 변화함을 알고는 있지만 임신 소식에 기뻐하는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유춘심 / 83세 / 여 / 노년

4자녀의 어머니이자 현재는 일을 관두고 복지관에서 도서관 사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년의 할머니이다. 독립한 자식들과 6년전 먼저 떠나보낸 남편에 외로움을 느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식들과의 사이가 안좋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일부러 외로움을 감추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같이 살자는 자식에게는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40년전 남편과 산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 밤이되면 다시 외로움을 느끼며 먼저 간 남편과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는 한다.

박해늘 / 27살 / 여 / 호텔 경영부 인턴

남자친구와 사별하게 된 여자. 남자친구가 죽은 원인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놓지 못하며 차갑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이다.

주변에서는 해늘의 잘못이 아니라며 다독여 주지만,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남자친구와의 다툼 이후 화해를 하지 못한 채 사별을 하여 그에 대한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

# 스토리

## Part 1 : Something Just Like This

기억을 잃은 한 남자, ‘정하람’이 눈을 뜬 곳은 은행 창구와 같은 공간이었다. 일반적인 은행창구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이었다. 하람의 손에는 번호표가 들려있었고, 이후 자신의 손에 들린 번호표의 번호가 불렸고 하람은 창구로 향하였다. 창구의 직원은 남자에게 본인확인 작업을 하였으나 하람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직원은 괜찮다며 남자가 죽었고, 사후세계에 왔음을 설명하였다. 하람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에 당황했고, 이후 직원이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채 대답만을 한다. 작업이 끝난 직원은 하람에게 대기실로 향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하람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남자는 자신을 꿈 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인 오정수라고 소개한 후 하람의 팔을 당겨 어딘가로 향했다.

어디로 가냐는 하람의 질문에 오정수는 꿈 엔터테인먼트라고 말하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물었다.

하람은 당황해서 넘겨들은 직원이 했던 말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오정수와 하람은 곧 회사와 같은 복도에 도착했고, 오정수는 ‘특수꿈’이라 써있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하람은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물었고, 오정수는 ‘사후세계에서 꿈을 만드는 곳’이라 것과 하람이 특수한 꿈을 만드는 특수꿈 부서에서 일하게 될것임을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오정수와 하람, 오정수는 기억상실증인 것과 죽음에 당황하고 있는 하람을 안심시키고자 농담을 던지며 사후세계에서의 일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또한 꿈을 만들다 보면 하람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올 것이라 안심시켰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잠시 걸은 둘은 ‘특수꿈 기획부’라 써있는 문앞에서 멈췄고 오정수가 문을 열었다. 가운데 큰 문을 중심으로 회사의 사무실과 같은 기획부의 공간에서 오정수는 하람의 자리를 안내해주었다. 아무도 없는 기획부의 공간을 안내한 오정수는 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준다고 다시 하람을 이끌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람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오정수에게 ‘특수꿈’이란 무엇인지 물었다. 오정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이 특수꿈이라 답했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하람에게 오정수는 웃으며 지금부터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보인 문은 '특수꿈 연출부'였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과 하람이 부딪혔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든 여성은 곧 인상을 찡그리더니 오정수의 먹살을 잡았다. 그리고는 욕을 하기 시작했고 먹살을 잡힌 오정수는 웃으며 사과할지 않은 사과를 했다. 곧 여성은 옆에 보이는 하람을 보고는 먹살을 풀고 신입인지 물어보았다. 오정수는 둘을 인사시켰고 하람에게 여성을 양선화 연출부 과장, 양감독이라 소개하였다. 양선화는 인사를 하고 곧 엘리베이터로 향하였다.

오정수는 하람에게 연출부는 기획부의 기획을 받아서 촬영하기 때문에 어이없는 기획이면 연출부에서 화를 낸다고 알렸다. 연출부의 회의실은 기획부의 사무실과 비슷했지만, 가운데의 큰 칠판에 써있는 '우주비행사'라 크게 적힌 글씨와 한 대학생의 프로필이 눈이 띄었다. 오정수는 다시 하람을 엘리베이터로 끌고가 다른 층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커다란 규모의 세트장이었다. 오정수는 현재 우주비행사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의 꿈을 제작중이라 알려주었다. 어두운 세트장에서 발밑을 보던 하람이 세트장 안쪽으로 들어가 고개를 들자 우주가 펼쳐져있다. 이후 '컷' 소리와 함께 세트장이 밝아졌고 촬영 스텝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중에는 양선화 감독의 모습이 있었다. 양선화 감독의 해산명령의 모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잠시후 하람과 오정수에게 한 노신사분이 다가왔다. 오정수는 그를 촬영감독인 '송학'이라 알려주었고 둘을 인사시켰다. 송학은 배우들을 만나볼 것을 권했고, 오정수와 하람은 배우 대기실로 향하였다.

배우 대기실의 문을 두드리자 한 우주복을 입은 남성이 문을 열었다. 남성의 얼굴은 하람이 연출부의 회의실에서 본 프로필의 남성이었다. 남자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는 문을 닫은 후 잠시 뒤에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까 본 남성과는 다른 남성이 서있었다. 남성은 자신을 배우 '심진태'라 소개하였다. 정진태가 자신 외에도 수많은 배우가 있음을 알려주고 대화를 나누다 인사를 마쳤다. 오정수는 하람을 마지막 장소인 '편집부'로 데려갔다.

수많은 컴퓨터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오정수는 헤드폰을 쓰고 편한 복장을 한 여성이 있는 장소로 향했다. 여성이 편집에 집중해 있자 오정수가 어깨를 두드렸고 이후 여성은 둘을 보고 인사했다.

오정수는 하람에게 편집과의 과장인 조민아를 소개했다. 오정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기억되는 부분'을 편집하는 편집부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칭찬하고 이후 인사를 마쳤다.

오정수는 이후 하람에게 소감을 물어보았다. 하람이 오정수에게 어쩌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묻자 오정수는 '환생'과 '바람'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일을 할 수록 사후세계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환생 후 이룰 수 있는 '바람'이 커진다는 것, 그리고 여기의 사람들이 각자의 바람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하람은 오정수의 안내로 사내 기숙사에 도착하였다. 오정수가 안내를 하고 떠나고, 침대에 누운 하람은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바람'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 Part 2 : Can't take my eyes off you

첫 출근, 하람은 어제 왔던 길을 따라 기획부로 향하였다. 기획부 회의실에는 한 여성이 서있었다. 인사를 나눈 둘, 여성은 자신을 기획부의 심세련 대리라 소개했다. 세련은 오정수가 현재 다른 신입사원을 안내중이라 말했다. 이후 세련은 하람에게 서류와 카드 한장을 건넸다. 하람은 서류에서 18세의 학생, 김주호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 카드에는 김주호의 사진과 바코드가 있었다.

세련은 하람이 서류를 읽은 것을 확인하고 회의실 가운데의 큰 문으로 안내하였다. 문앞에는 '회상의 문'이라 써있었다. 세련은 문은 들어가는 것으로 의뢰자의 꿈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세련은 웃으며 문 옆의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인식시켰고 문이 열렸다. 어두운 안쪽이 보이고 세련은 하람을 이끌고 문의 안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뒤 길의 끝,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학교의 교실,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람이 놀라 당황하자 세련은 과거의 이야기이며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보이지 않음을 설명해주었다. 하람은 안심한 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 <김주호의 회상 시작>

김주호는 스스로 외모도, 성적도, 키도, 교우관계도, 모든것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적당한 거리감을 만들었다. 이따금 남들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이외에 무언가에 '특별한' 친구들을 보며 자신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볼까 생각해보았지만 곧장 귀찮음을 느끼고 포기했다. 이후 평범하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1학년이 된 김주호는 한 여학생을 만났다. 1학년 1학기, 임시반장을 뽑는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한 여학생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이름이 '정혜진'이었던 여학생인 임시반장이 된 이후에 열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밝은 미소로 대하고 선생님께도 깍듯이 대했고 모두가 어색한 1학년 1학기, 혜진은 반의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주호는 그런 혜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은 저런 일을 할 수 없고 혜진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였다. 이후에도 혜진은 수련회와 운동회에서도 친구들을 이끌었고 주호는 혜진이 언제 지칠지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고 주호는 계속해서 혜진을 눈으로 쫓았다.

2학년이 된 주호와 혜진의 모습은 평범한 아이와 열정적인 아이로 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장이 된 혜진의 옆에 새로 부반장이 된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남자아이는 유머러스 성격 준수한 외모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친구였다. 이후 둘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주호는 자신도 모르는 감정을 처음 느꼈다.

운없이 걸린 음악실 청소를 마친 주호는 가방을 가지러 가기 위해 반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혼자 남아있는 혜진을 만났다. 무엇을 하냐는 말에 혜진이 웃으며 이번에 2학년이 된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하나씩 떠올리고 있다 하였다. 왜 그러냐는 주호의 말에는 모두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니까 라는 대답을 했다. 주호는 알았다며 잘가라는 말과 함께 교실을 나왔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주호의 가슴이 뛰었다. 1학년부터 노력하던 혜진의 모습을 바라보던 주호는 자신의 감정이 어느샌가 사랑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눈을 감든 뜨든 혜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 <김주호의 회상 끝>

주변이 어두워지고 세련은 하람을 빛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잠시 걸은 후, 둘은 기획부의 회의실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회의실의 가운데 오정수가 서있었다. 오정수가 소감을 묻자 하람은 신기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각자 잠시 기획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하람은 주호와 혜진을 볼 때 노력하는 아이와 그걸 보고 있는 아이라는 느낌에서 한 여자아이가 떠올랐다. 하지만 모자이크가 낀 것 같이 구체적으로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인턴’이라며 부르는 오정수의 말에 생각에 잠겼던 하람이 고개를 돌렸고 회의를 위해 중앙의 테이블로 모였다. 자리에 앉은 후 세련이 새로운 신입사원이 어디갔는지 묻자, 오정수는 비둘기가 됐다는 농담을 했지만 세련이 받아주지 않았고, 현재 매우 화난 상태라 우선은 기숙사에 보냈다고 하였다.

오정수는 웃으며 하람에게 김주호의 꿈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냐고 물었고 하람은 주호가 꿈속에서 행복할 만한 상황들을 제시했다. 세련과 오정수는 하람의 말에 틀린 기획은 아니지만 ‘특별꿈’은 의뢰자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좀 더 생각해보라는 말에 하람은 책상으로가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하람의 머릿속에 모자이크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한 여자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점점 그 여자아이의 얼굴이 밝아진다.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웃음이 좋았고 계속 보고 싶어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없을 때 하람은 그 여자아이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 기억을 바탕으로 하람은 기획서를 작성해갔고 얼마뒤 오정수와 세련을 불러 기획서가 완성되었음을 알렸다. 하람은 주호에게 혜진이 없는 상황을 제시해 보자고 하였다. 세련과 오정수라 하람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하람의 기획을 들었다. 하람이 발표를 마쳤을 때, 둘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후 셋은 하람의 기획을 토대로 회의를 더 이어나갔다.

오정수는 웃으며 완성된 기획서를 하람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양감독에게 자신이 가기 무서우니 대신 전해달라 한다. 하람이 양선화 감독에게 가서 기획서를 건내주자, 양선화 감독은 한번 읽어보더니 하람에게 처음치고는 잘했다며 가볍게 칭찬하고는 OK사인을 했다.

이후 꿈은 촬영에 들어갔다.

#### <김주호의 꿈 시작>

모두가 있는 회색빛 교실 속, 주호는 수업을 듣는다. 혜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주호는 눈치채지 못하고 일상을 보낸다. 하지만 주호는 무언가 없음을 점점 깨닫는다. 회색빛 교실의 친구들 속에서 주호는 누군가를 찾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곧 주호는 교실속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그리고 점점 주호의 몸도 회색빛으로 변해간다. 회색이 점점 짙어지며 검은 색이 되어간다. 주위의 것들이 보이지 않아갈 때 두려워하는 주호, 그리고 교실의 뒷 문이 열린다.

주호가 교실의 뒷문을 바라보자 교실의 뒷문부터 빛이나고 주위는 검은색에서 밝은 색으로 물들어간다. 잠시뒤 빛속에서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과함께 혜진이 들어온다. 혜진과 빛이 주호의 곁으로 다가와 주호의 옆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자리에 앉은 혜진이 주호를 보고 미소짓자 검은색이었던 세상은 어느세 각자의 색을 찾은 밝은 세상이 되었다.

#### <주호의 꿈 끝>

그날 밤, 하람은 사내 기숙사의 침대에 누워 자신이 기획한 꿈이 주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자신의 기억속 여자아이가 누구인지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반복하다 잠에 들었다.

몇 일간 하람은 꿈의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기획에 대한 공부와 기획부 교육 등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몇일 뒤 오정수는 하람을 불러 잘했다며 칭찬하고 김주호가 혜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녀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음을 전했다.

하람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고, 자신이 한 일이 주호에게 좋은 변화를 주었음에 만족했다. 몇일 뒤 하람이 기획과에 오자 처음보는 한 여성이 보였다. 여성의 이름은 ‘안노을’, 오정수가 이전에 말했던 또다른 ‘신입’이었다. 하람이 건넌 인사를 받는 노을, 하람은 노을을 보며 무언가 슬픔을 느꼈다.

## Part 3 :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하람과 노을은 몇일간 세련의 엄격한 지도를 받았다. 몇가지 기획서를 들고가면 세련은 기획서의 어디가 부족한지를 지적했고 다시 써올 것을 요구했다. 하람은 너무 행복한 꿈을 만들어서, 노을은 너무 현실적인 꿈을 만들어서 지적받았다. 오정수는 세련이 생전 소설작가였음을 알려주고 세련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세련은 오정수의 농담을 무시하고 ‘특별 꿈의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너무 행복한 꿈은 착각이나 깨어났을 때의 허탈함을, 너무 현실적인 꿈은 잘못하면 절망감을 안겨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하람은 자신의 지적사항에, 죄송하다며 해맑게 웃었고, 노을은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곧 미소를 찾았다. 하람은 그런 노을이 억지로 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던 나날 중, 오정수는 58세의 ‘정남수’라는 남자의 프로필을 들고왔다. 오정수는 정남수가 사회생활 40년차인 회사원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남편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하람과 노을을 불러 회상의 문으로 향했다.

오정수가 정남수라 써있는 카드를 인식시키자 지난번 처럼 문이 열렸다. 그러한 와중에도 오정수는 놀이공원의 아르바이트생 같은 말을 하며 두릉= 문 안쪽으로 이끌었고 그 뒤를 세련이 따라갔다.

### <정남수의 회상 시작>

정남수는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맞벌이를 해가며 정남수에게 부족함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의 아버지는 건설현장과 택시기사 등 많은 일을 힘들게 해나갔지만 주말이 되면 정남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멀리 나가지 못하는 날이면 공원에서 캐치볼을 하며 일상의 대화라도 하며 정남수와 시간을 보냈다. 정남수는 특히 9월의 어느날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간 정동진의 일출을 잊지 못했다.

이후 정남수가 성장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은 점차 줄었고, 결혼 이후에는 연락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건설회사에서 40년째 근무한 현재, 정남수 부장은 28살의 딸과 25살의 아들, 그리고 54세의 아내가 있다.

아내를 위해 살아왔고,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던 그는 삶속에서 느끼는 상사의 모욕이나 거래처의 갑질에도 참으며 직장을 다녔다.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달려온 40년이 주마등처럼 보이고, 어느덧 57세가 되던 해, 정남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정남수는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를 뵈지 못하고 효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정남수는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후 1년이 지나고, 정남수는 다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사라지기 보다는 다른 일에 묻혀 아버지의 죽음을 삶속에서 조금씩 잊혀갔다.

<정남수의 회상 끝>

회의실로 돌아온 넷, 오정수가 노을과 하람에게 소감을 물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하람은 잘 대답하지 못했다. 노을은 자신의 부모님과 달라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오정수는 자신도 그렇다며 쉽게 기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후 꿈의 기획 단계에서 넷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지지 못했다. 회의의 중간중간, 하람은 자신의 부모님이 누구일까 생각하며 무심코 ‘직접 부모님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꺼낸다. 그 말을 들은 오정수는 한숨을 쉬고는 세련을 보며 ‘라이브 드림’을 해야함을 물어보았다. 세련은 양선화 감독에게 욕먹는 오정수를 보지 못해 아쉽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후 오정수는 새로운 교육이라며 하람과 노을을 이끌고 연출부로 향했다.

연출부의 회의실, 오정수가 들어오자 양선화가 웃으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 대체로 일에 관해 쌓은 스트레스를 푸는 욕이었다. 오정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정남수의 프로필과 함께 ‘라이브 드림’을 진행할 것을 부탁했다. 양선화는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알고 있냐며 오정수에게 화를 냈다.

오정수는 ‘한번만’하며 애교를 부리고 양선화는 더 화를 내려는 찰나, 하람과 노을을 보고 우선은 화를 가라앉혔다. 그리고 ‘라이브 드림’이 무엇인지 아냐 물었고, 하람과 노을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왜 그런것도 안가르치냐’며 오정수에게 또다시 화를 냈다. 그리고 양선화는 ‘라이브 드림’에 대해 설명했다. 일반적인 꿈은 ‘상영식’으로 꿈을 꾸는 ‘꿈의

세계’에서, 의뢰자가 따로 행동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라이브 드림’은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의 세계’에서 주체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일반 방송과 생방송의 차이로 설명했다. 양선화는 화를 가라앉히고 신입들에게 교육할 좋은 기회라며 오정수에게 겨우 OK사인을 보냈다.

기획실로 돌아온 오정수가 세련에게 승낙됐고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세련은 알겠다면 노을과 하람을 바라보더니 ‘오늘은 노을이가 가자’하며 노을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다.

오정수는 하람에게 세련과 노을이 사후세계에 정남수의 아버지가 남아있음을 확인하러 갔다고 알려주었다.

남은 하람과 오정수는 기획을 마저 시작했다. ‘라이브 드림’에서 돌발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남수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정동진’이라는 공간과 ‘캐치볼’이라는 행동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세련과 노을이 돌아와 정남수의 아버지가 사후세계에 있음을 보고했다.

이후 넷은 기획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연출부에 전달했고, 얼마후 ‘라이브 드림’을 위해 ‘꿈의 세계’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지나 꿈의 세계에 도착하였을 땐 수많은 문이 창고와 같은 공간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었고 오정수는 카운터로 보이는 곳에서 안내를 받았다. 바닥에 있는 판이 가로와 세로로 움직이더니 ‘정남수님’이라 써있는 문앞에 도착하였고 문을 열자, 스태프들이 세트장 제작을 마무리 하고 있었다. ‘정동진의 일출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이사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기획과는 한 노인분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노인은 자신을 정남수의 아버지, 정철진이라 소개하였다. 그리고 오정수는 그에게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절망감을 너무 크게 주지 말 것’, ‘꿈의 세계에 갇히게 하는 행동은 피할 것’ 등등이었다. 이후 양선화 감독이 ‘자! 촬영준비!’라 말했고 모두 보지 않는 곳에 숨어 숨죽이며 정동진의 해변을 바라보았다.

#### <정남수의 꿈 시작>

정남수가 눈을 떴을 때, 언제가 보았던 해변에 서있었다. ‘아들 받아!’ 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야구공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받은 왼손에는 글러브가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해변에 아버지가 서 계셨다.

아무말 없이 공을 주고 받던 부자, 정남수의 아버지, 정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만하니?’라는 말에 정남수는 아무말도 못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정남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딸의 결혼식이 다가온 일, 아들이 군대에 간 일, 와이프와 다툼일,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난일 등등 정남수는 하나씩 말을 이었다.  
가만히 듣던 정철진은 웃으며 ‘잘 살고 있네’라 말하고 공을 던졌다.

그리고 공을 받은 정남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정남수는 아이처럼  
핑핑울기 시작했다. 정철진은 조금씩 정남수에게로 향했다. 정철진이 눈앞까지 다가오자  
정남수는 울며 아버지를 안았다.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 떠나가는 자식들도, 어깨에 힘이 없어진 아내도, 이제는 설 곳이  
없어진 회사도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전 어떻게  
해야되죠? 아버지는 늘 제 앞에서 멋있게 서계셨어요. 이제 그런 아버지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정철진은 말없이 웃으며 정남수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정남수의 울음이 조금씩 그칠 때  
즈음에 입을 열었다.

‘아빠도 말이야, 너무 무서웠단다. 건설현장에서 다쳤을 때에도, 택시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에도, 네 엄마가 아팠을 때에도, 너가 놀이터에서 다쳤을 때에도 너무 무서웠단다.  
그런데 언젠가 뒤돌아보니 지나갈 일이었던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셨어 일은  
전부 지나간다고, 지나가는동안 열심히 하면 분명 추억으로 남을거라고 말이야.

주말에 힘들어도 너랑 나갔던 추억은 죽는 순간에도 아쉽기는 했어.

우리 정남이 더 놀아줄걸, 이렇게 좋은 기억이었으면 더 만들어줄걸 하고 말이야.

정남아. 지나간 일, 그리고 지나갈 일이야. 넌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단다. 일이 다가오는건  
어쩔 수 없단다.

시간은 흐르거든. 그럴기에 무서워하지마렴.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웃어봐. 너한테도, 네  
아내에게도, 우리 손주들한테도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은 추억 만들어주자꾸나.’

정철진의 말을 들은 정남수는 계속 울었다. 꿈이 깨는 그 순간까지.

<정남수의 꿈 끝>

하람은 사내 기숙사의 침대에 걸쳐 앉아 ‘라이브 드림’중에 떠올랐던 기억을 되새겼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두 남녀, 하람은 무의식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부모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들을 위로하고 웃어주는 정철진 보며 부모님의 기억이 조금 돌아온 것이다.

아직은 모자이크의 기억 속, 부모님의 다정다감한 목소리에 하람도 정남수 처럼 눈물이 흐르고 편안히 잠에 들었다.

몇일 뒤 오정수가 출근하며 정남수가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노후에 고향에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 가족들에게 커피를 내려줄 계획을 한다 전했다. 그리고 정남수가 지나가는 지금을 추억으로 간직하리라 마음먹었다고도 전했다.

퇴근시간, 하람은 노을에게 이번 의뢰로 인해 부모님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노을의 표정은 어두워지더니 이내 다시 밝아지며 하람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섰다.

하람은 그런 노을의 표정에서 슬픔을 느꼈다.

## Part 4 : Firework

정남수의 꿈 이후 몇가지 의뢰를 더 수행했다. 하람은 되도록 꿈을 꾸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꿈을 기획했다. 김주호와 정남수의 일로, 타인들의 행복이 자신의 보람으로 다가오는게 기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같이 일하는 노을이 신경쓰였다. 노을은 지난 몇개의 회의에서 차갑고 냉철하게 답했기 때문이다. 정남수의 꿈 이후로 ‘학업에 신경쓰는 학생’, ‘임용고시를 앞둔 예비교사’등의 의뢰들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포기하라는 등의 말을 꺼냈기 때문이다.

그런 노을의 태도에서 하람은 노을과 대화해 보고자 했고, 웃으며 대화를 청했지만 노을이 이를 빈번히 거절했다. 하람의 노력이 지속되자 노을이 결국 화를 내며 눈치 없게 행동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고, ‘눈치 없다’라는 말에 순간 하람의 앞에서 울고있는 여자가 보였고 이 기억에서 왠지모를 부정적인 감정이 하람을 덮쳤다. 이후 하람은 노을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본 오정수가 하람을 사내의 카페로 불러냈다.

하람은 오정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이를 들은 오정수는 노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세상에 대한 원망을 지니고 있었고, 그로 인한 패닉을 달래는데 기획부로 오는데 오래 걸렸음을 설명했다. 하람이 오정수에게 노을이 세상을 원망한 이유를 묻자 오정수는 모든 사람은 개인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은 본인에게 직접 듣는게 좋을 것이라며 자리를 나섰다. 얼마 후, 여전히 하람과 노을은 말을 섞지 못했고 ‘불우한 가정에서 수의사를 꿈꾸는 여자아이, 유보미’의 의뢰가 시작되었다. 각자 프로필을 읽어본 후,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 ‘회상의 문’을 지났다.

### <유보미의 회상 시작>

유보미는 4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다. 보미의 아버지는 사업이 빈번히 실패하고 현재는 푸드트럭을 운영중이다.

이동이 많은 탓에 보미의 아버지는 보미를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7살이 된 보미를 맡겼다. 시골에 있는 친할머니댁에서 살게된 보미는 낯선 환경에 처음엔 무서워 했으나 책에서만 보던 가축들이나 야생동물들을 실제로 보게되며 신기해 하였고, 이는 곧 동물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친할머니댁의 애완견인 ‘돌이’와 길고양이 ‘모래’에 대한 애정이 가장 컸다. 학교에 다니게 되고 친구들과는 주변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놀았다. 하지만 얼마뒤 야생동물이 내려온다는 경고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보미는 집에서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했다.

그러던 어느 해가 뜨기 전 새벽날, ‘돌이’가 짚는 소리에 갠 보미는 마당으로 나와보고,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집의 침입했음을 본다. 그리고 멧돼지의 발아래는 피를 흘리고 있는 ‘모래’가 보였다. 보미가 멧돼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멧돼지가 보미에게 돌진하려는 순간, ‘돌이’가 목줄을 끊고 멧돼지에게 달려들었다. 이후 마당의 물건들을 모두 쓰러트릴 정도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소리에 보미의 친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상황을 보게 되었다.

보미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고, 친할머니는 급하게 이웃과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잠시뒤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문밖으로 도망쳤고 혈떡이던 ‘돌이’는 곧 쓰러졌다. 보미는 ‘돌이’와 ‘모래’를 안았지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두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울 수 밖에 없었다.

몇일을 침울해 하던 보미는 어느날 가족들의 상태를 보러온 수의사를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물을 치료해 주는 의사가 되어 아픈 동물친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돌이’와 ‘모래’같은 동물친구들을 구해주겠다고 생각했다.

#### <유보미의 회상 끝>

회의실로 돌아오고, 오정수는 급한 불일이 생겼다며 갑자기 세련을 끌고 나가려한다. 그리고는 잠시 기획을 생각해 보라 말하며 하람에게 왕크하더니 영문도 모르는 세련을 데리고 그대로 나간다.

잠시의 침묵 이후, 하람이 먼저 노을의 소감을 물었다. 노을을 한숨을 쉬고는 경제적인 이유와 교육환경등을 이유로 수의사라는 꿈이 어림없으며 그렇기에 꿈을 포기하고 다른 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에 하람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능서이 있다 말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이 심화되고 노을이 무심코 ‘기억도 없는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하람은 그 말에 ‘나도 원해서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다.’며 화를 내게 된다. 노을도 자신이 무심코 한 말에 놀라 당황하고 하람의 화에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나도 내가 원해서 죽은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획부를 뛰쳐 나갔다. 하람은 노을을 뒤따라가려 했지만 우선 의자에 앉아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기로 한다.

그런 하람은 노을이 처음 사후세계에 왔을 때와 모두에게 각자의 사정이란 것이 있다는 오정수의 말을 떠올렸다. 하람은 우선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진솔하게 들려주고 노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볼 생각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노을을 찾기위해 회의실을 나갔다.

사내를 돌아다니던 하람이 노을을 찾은 곳은 촬영 비품을 쌓아놓은 창고였다. 노을은 쭈구려 앉은 채 조용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람은 노을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하람은 생전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기도하지만 그걸 알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모습일까 두렵고 이따금씩 떠오르는 모자이크 된 기억들 중 누군가 울고 있었기에 누군가를 상처준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도 전한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있을 부모님의 얼굴마저도 떠오르지 못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덧붙였다.

이러한 하람의 고백에 노을은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입을 열었다.

#### <안노을의 회상 시작>

노을은 가난한 자영업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좁은 집과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는 장난감들이 많았다. 노을의 부모님은 노을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항상했다. 초등학생까지만 해도 이러한 가정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에 불만 없이 자라왔지만 중학생이 되고 난 이후 친구들간의 비교가 생기면서 점점 불만을 가져갔다. 노을은 늘 미안하다는 부모님의 말이 싫었고 자신은 그런 부모님을 보며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고등학교때에는 노을의 부모님이 대학비를 지원해 줄 수 없었을것이라 생각해서대학교의 진학을 걱정하였다. 그렇기에 장학금을 목표로 학업에 매진하였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며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원하는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장학금이 나오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노을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장학금이 나오는 대학에 가게되었다.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노을은 장학금에 만족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를 다니면서였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장학금 외에도 돈이 필요하였다. 노을은 일부러 부모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돈이 필요하냐는 부모님에 말과 조금은 쉬라는 친구들의 말에는 괜찮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다.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장학금을 고려해도 이후 갚을 것을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고 생각했고, 학업과 일을 병행했다. 학교의 시간표를 따라 규칙적인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에 맞는 여러가지 알바를 병행했다.

그리고 학점을 위해서도 툼툼히 공부하였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자던 노을은 시험기간이 되면 4시간도 자지 못하게 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와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다.

‘부자가 되자’는 포스트잇을 방 곳곳에 붙이고 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삶 속에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 쓰러졌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 <안노을의 회상 끝>

말이 없던 노을은 ‘힘들었다’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미안하고 하는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못해준 것’이라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노을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에 부모님을 의지한다면 또 무리를 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되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이후에도 노을은 자신의 미련과 생전의 일을 하람에게 풀어놓았다. 하람은 노을의 말을 계속 들어주었다. 노을이 더이상 말을 꺼내지 않자 하람이 다 말했는지 물어보았고 노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에게 말해 속이 시원해졌냐는 하람에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람이 이어서 말을 꺼냈다.

‘사람은 참 약한 것 같아요. 겁먹고 무서워하고, 잘하지 못하니까요. 때로는 좌절감에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하죠. 그러니까 도와줄래요? 저도 도와줄게요.’

하람은 일어나 노을에게 손을 건넸다.

노을은 손을 건네는 하람을 보며 생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만일 자신이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등을 생각했다. 그리고 후회가 된다면 하람의 손을 잡았다.

하람은 노을을 이끌며 세우며 지난 일에 후회는 있으니, 같은 후회를 하지 않게 노력해보자 전한다. 그리고 ‘기억이 없어서 전 잘 모르지만.’ 하고 웃었다. 그런 하람을 보고 노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둘은 기획부로 돌아갔다.



이후에 기획부의 넷은 보미의 꿈 기획에 착수했다. 그리고 얼마 뒤 보미의 꿈 기획서를 연출부로 전달한다.

#### <유보미의 꿈 시작>

초원의 한가운데 보미는 가운을 입고 있었다. 다리에 피를 흘리며 아파하는 강아지 한마리가 보미에게 다가오고 있다.

보미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봉대를 꺼내 강아지의 다리에 감아주자 강아지는 다 나아 보미의 주위를 꼬리를 흔들며 뛰어 다닌다. 이번에는 소 한마리가 보미에게 온다.

크게 우는 소에게 다가가 소의 배를 쓰다듬어준다. 그러는 와중에 아파보이는 동물들이 점점 보미에게 다가오고 생겨났다.

보미는 동물 정신없는 가운데 한마리씩 치료해준다. 보미의 가운 주머니에서는 봉대와 주사기가 나왔고 그것들을 사용하면 동물들이 아파하지 않았다.

보미가 보았을 때 많은 동물 친구들이 아파하였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고래 한마리가 누워있었다. 그리고 고래는 보미에게 아프다며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보미는 당황해하면서도 고래에게 다가갔다.

보미는 어떻게든 고래를 치료하려 하였지만 가진 봉대와 바늘은 너무 작았다. 고래가 아프다며 점점 크게 운다. 당황한 보미는 그저 우는 고래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 <유보미의 꿈 끝>

하람과 노을은 4일간 출근할 때 마다 오정수에게 보미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오정수는 아직 소식이 안왔다 말했고 5일 뒤, 보미가 질문이 많이 늘었다고 전해주었다. 꿈을 꾸 뒤 의사 선생님이 온 날 고래는 어떻게 치료해주는지 물어보았고, 이후에도 의사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왜 동물이 아프고 어떻게하면 낫는지 계속해 물어보고 있다는 보미의 소식을 전했다.

하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람과 눈이 마주친 노을은 ‘저 아이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라 말하고는 ‘그래도 후회없이 열심히 하면 좋겠네요’하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하람을 보고 처음으로 행복해보이는 얼굴로 웃었다.

## Part 5 : Mardy bum

한동안 휴식기를 마친 기획부팀의 회의실, 오정수를 제외한 인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일을 보고 있다. 하람은 이전 떠올랐던 부모님의 기억과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한 여자의 기억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람을 위로해주는 부모님의 모습과 하람을 보고 웃거나 화내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설령 기억을 찾더라도 어떤 일이 떠오를지 두렵기도 하였다.

잠시후 미소를 띤 오정수가 재밌어 보이는 일을 가져왔다며 2명의 꿈을 동시에 만든다 전했다. 곧장 세련이 차가운 얼굴로 오정수를 혼냈다. 세련이 야단에도 웃으며 반응하던 오정수가 프로필을 놓쳤고 노을과 하람이 하나씩 프로필을 들었다. . ‘배정민’과 ‘윤수아’, 각각 33세와 31세의 신혼인 부부였다. 카드에는 2명의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련까지 프로필을 읽고난 후, 기획부 인원들은 ‘회상의 문’으로 이동했다.

### <배정민, 윤수아의 회상 시작>

남편인 ‘배정민’은 복지과의 공무원, 윤수아는 광고대행사에서 대리로 근무중이다. 둘이 만난건 4년전 한 친구의 소개팅에서였다. 각자 공무원과 광고 대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던 둘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배정민은 옛날부터 규칙대로, 정해진 행동대로만 움직였었고, 윤수아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첫만남에서 서로의 성향이 반대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과는 다른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3년간의 연애, 바쁜 일정에서 틈틈히 시간을 내어 데이트를 즐겼다. 그리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번갈아가며 데이트를 이끌어보니 매번 새롭게 느껴졌다. 배정민과 윤수아는 서로가 있다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되었다. 그렇게 둘은 평생 행복할 줄로만 알았다.

연애가 서로의 좋은 부분만을 보여주었다면, 결혼은 서로의 모든 부분을 보여주어야 했다. 3년간에 연애기간동안 서로가 친해졌다 생각했고, 많은 것을 공유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든것’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게 아니었다. 쉽게 정리하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였다. 만났을 때부터 다른것을 알았기에 어느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고 결혼을 바로 했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방식’차이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세탁과 여가시간, 출퇴근 등 생활적인 부분이 너무나 달랐다.

배정민은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세탁물 분리까지, 모두 정해진 대로 생활하는 스타일이었고 윤수아는 생각날 때나 눈에 보일 때, 그때그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다.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배정민의 인사이드가 있었고, 일이 바빠짐에 따라 직장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는 조금씩 집안일에 관한 스트레스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윤수아는 배정민의 생활패턴을 존중하였고 ‘규칙’을 만들고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은 하였다.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배정민의 경우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백까지 규칙을 만드려하였고 이는 역시 일을 겸하는 윤수아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자유롭게 살아왔던 윤수아는 노력을 함에도 익숙치 않아 수많은 규칙에서 한두개를 어길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배정민과 마찬가지로 윤수아의 일도 바빠짐에 따라 집안의 규칙보다는 회사의 규칙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서로의 ‘생활방식’에는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 결혼 후 1년, 서로의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존중하지 못한다’, ‘이해해주지 못한다’로 말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둘은 일주일째 말을 섞지 않게 되었고, 윤수아는 결국 집에서 가까운 자신의 친정으로 떠나고 말았다. 서로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서로 자신에 대해 조금은 생각해 주기를 바랬다.

#### <배정민, 윤수아의 회상 끝>

배정민과 윤수아의 기억을 회상하는 도중에 하람의 기억 속에선 이전에 보였던 부모님이 싸우고 있었다.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가며 소리를 쳤고, 하람은 그러한 기억으로 인해 회의실에 돌아와서도 표정이 좋지 않다. 노을이 걱정하자 하람은 괜찮다고 대답한다. 이후 오정수의 주도아래 기획 회의가 시작되었다.

오정수는 팀내에서 생전에 유일한 기혼자였던 세련에게 소감을 물었다. 세련은 결혼 생활은 남과 남이 모이는 것이기에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했고, 오정수는 재미있는 결혼이 오래 갈 것이라 주장했다. 노을은 생전의 자신도 집에서 만큼은 편하기를 바랬다 말하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며 세련과 오정수의 의견을 돌아가며 지지하였다.

하람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사이에서 둘의 토론을 지켜보았다. 결국 세련의 의견이 유력한 쪽으로 기울었을 때, 오정수는 각자 살아가기에 정답이 없다며 마지막 의견을 말했다.

하람은 무엇이 떠오른듯 오정수의 말을 듣고 손을 들었고 자신의 말을 꺼냈다. 오정수의 말대로 사람들마다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결혼생활이란 것에 대해 외부인들이 정할 것이 아닌, 본인들이 생각해볼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세련의 말에 더이상 반박할 거리가 없었던 오정수는 하람의 말이 맞다며 지지하였다. 노을도 하람의 말에 설득되었고, 세련 역시 자신의 부부생활과는 다를 수 있다며 하람의 의견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꿈을 꾸게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 될 수록 ‘악몽’, 의뢰자가 무서울 법한 꿈의 기획되었다. 하람은 처음 만들어보는 ‘악몽’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의뢰자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세련은 단순히 행복한 꿈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를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지적했다. 이전에도 설명했듯,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여준다면, 기대한것과 다른 결혼생활로 배정우와 윤수아의 사이가 더 안좋아 질 수 있음을 말했다. 그리고 때로는 악몽에서도 의뢰자들이 의미를 느낄 수 있다 하며 하람에게 현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하람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오정수는 세련에게 웃으며 하람을 너무 혼내지 말라한 후, 하람을 위로했다.

얼마후 완성된 기획서를 연출부로 전달하였고 곧 촬영에 들어갔다.

#### <배정민, 윤수아의 꿈>

‘어두운 공간, 조명 아래 퍼즐조각이 널부러져있다.

그림이 없는 퍼즐이라 마음대로 두어도 금방 맞출것 같다. 퍼즐 조각을 하나씩 잡아 맞추어본다.

거의 다 한 것 같았을 때, 옆 조명이 켜지며 아직 맞추지 못한 퍼즐부분이 나온다. 있던 부분을 마저 맞추고 옆으로 가 다시 퍼즐을 맞춘다. 이번에는 반쯤 맞추었을 때 옆 조명이 꺼졌다. 역시 맞추지 못한 퍼즐 부분이 보인다. 서둘러 퍼즐을 맞추고, 밝혀진 부분을 맞추러 갔다. 이번에는 반도 못맞췄을 때, 다른곳에서 조명이 켜진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맞추지 못하고 다시 새로 조명이 비추는 곳으로 간다.

10조각도 채 못맞췄지만 조명이 켜진다. 이번엔 9조각에 새로운 조명이 켜진다. 점점 다른 조명들이 빠르게 켜진다. 주위를 둘러보니 맞춘 퍼즐과 못맞춘 퍼즐이 널부러져 있다. 한숨을 쉬고 하나씩 천천히 맞추기로 한다. 조금해하지 말고, 천천히.

퍼즐조각을 둘수록 퍼즐조각이 무거워 지는 것 같았다. 점점 힘이 들었다. 그래도 참고 맞추어본다.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한조각만이 남았다. 마지막 조각의 위치가 어디인지 고개를 돌려 찾아본다.

저 멀리 빈 공간이 보인다. 힘든 몸을 이끌고 마지막 빈공간으로 향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추는 순간, 모든 조명이 꺼졌다.

잠시 뒤, 조명이 켜지고 맞춰던 퍼즐들이 맞추기 전 처럼 널부러져 있는걸 본다. 그리고 그 퍼즐조각 위에는 말 한마리가 서있었다. 그 말은 날 잠시 보더니 조명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말은 자유로워 보였다. 바닥의 퍼즐을 보지도 않고 달리고 있었으니.'

‘초원을 달린다. 계속해서 달린다. 드넓은 초원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한마리의 말이 되었다.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에 땀이나도, 숨이차도 지치지 않는다. 곧 괴물이 나타나 날 잡아먹기위해 달려든다. 하지만 날 따라잡지는 못한다. 난 자유로운 말이니까.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재밌다. 요리조리 괴물을 피하며 달리는게 너무나 재밌었다. 하지만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

내 파트너, 기수(騎手)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한다. 날 지켜줄 울타리로 도망가야한다. 저멀리 익숙한 울타리가 보이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괴물은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곧, 집에서 기수가 나와 나를 안아준다. 따뜻하다. 기수는 지친 나를 쓰다듬으며 마굿간으로 이끌었다. 깨끗한 마굿간에 도착했다. 눕고 싶다. 엄청나게 물을 마시고 싶다. 하지만 기수는 허락하지 않는다. 발굽의 편자를 바꿔야하고, 흘린땀을 씻어야한다. 달리면서 헝클어진 털을 정리해야한다.

기수가 하라는 것을 하기에는 난 너무 지쳤다. 몇가지 일을 더 해서야 좁은 우리에 겨우 누울 수 있었다. 답답하다. 방금까지 자유로웠던 나는 갇혀있다.

알람이 울린다. 몸이 움직여진다. 그리고 다시 울타리 밖으로 향했다. 이번엔 울타리를 나가자마자 괴물이 쫓아온다. 나는 다시 도망간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난 다시 울타리로 향한다. 기수가 나를 반긴다. 갇힌다. 다시 울타리를 나온다. 쫓긴다. 다시 울타리로...

피곤하다.'

<배정민, 윤수아의 꿈>

하람은 촬영중인 세트장을 몇번 방문했었다.

어둡고 무서운 느낌의 세트장은 하람이 가진 의뢰자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 만들어내었다.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하람을 몇번 보고있던 ‘송학’촬영 감독이 하람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하람은 자신이 가진 생각을 말하며 상담을 요청했다.송학은 인생이 꼭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송학은 모든 인생은 굴곡이 있으며, 힘든 일 속에서 노력한다면 방향을 찾을 수도 있다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철과갈아 열과 망치의 두들김을 견뎌 더 단단해지듯이 인생도 힘든 일을 겪은 후에 성장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송학은 하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며 인사를 한 후 자리를 떠났다.

하람은 송학의 말을 듣고 힘든 순간 자신이 노력했던 기억을 찾기위해 생각에 잠겼다. 그런 하람의 기억속에 이전에 떠올랐던 부모님들의 부부싸움이 보였다. 그리고 그 기억에서 더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해내었다.

‘늘 싸우시던 부모님은 하람이 보이면 싸우지 않았다. 하지만 하람은 눈치를 채고 있었다. 그리고 더 싸운다면 얼마안가 부모님이 이혼할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부모님이 안싸울까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땐기에 하람은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았다. 공부도, 운동도, 집안일도 그러면서 화난 얼굴이 아닌, 웃음만은 잃지 않겠다 다짐했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쉽지는 않았지만 틀리고, 실패하고, 손에 상처가 나면서 요령이 생겨갔다.

노력이 통했던 건지, 부모님의 싸움은 줄어갔다. 그리고 하람은 노력하는 습관과 웃음을 지니며 자라났다. 그리고 한 여자애를 만났다.’ 여기까지 하람은 부모님의 얼굴을 포함한 자신의 유년기가 떠올랐다.

하람은 기획부로 달려갔다. 그리고 기억이 어느정도 돌아왔다며 소리치면서 기획부의 동료들을 한번씩 끌어안았다. 기획부의 동료들은 웃으며 울고있는 하람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몇일 뒤 출근시간, 출근한 오정수로부터 지난번 부부의 결과를 듣게되었다. 생각할 시간으로 이틀정도 있다가 사과하러 가는 길에 마주쳤다고 했다. 서로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한번 같이 살아보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였다.

행복한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하람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하람은 세련에게 결혼생활이 행복했었는지 물어보았지만 이내 곧 미안하다며 말을 취소했다. 사후세계의 사람에게 실례일 것 같아서 였다. 세련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다. 몇일 뒤 세련은 ‘조퇴’를 하였다.

## Part 6 : I was Born To Love You

한번도 빠진적 없는 세련이 보이지 않자 노을과 하람이 세련이 어디갔는지 오정수에게 묻자 오정수는 달력을 보고 오늘은 세련의 자녀인 두 쌍둥이의 생일이라 말해준다. 그리고 매년 이날은 세련이 조퇴를 하는 날이라 설명해준다. 하람은 자리로 돌아가 언젠가 세련이 말해준 세련의 생전을 떠올렸다.

### <김세련의 회상 시작>

세련은 생전에 추리소설 작가였다. 고등학교 때 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학교의 문예창작학과를 가고난 후 공모전에서 추리소설로 금상을 타기도 하였다. 이후 그 작품은 출판으로 이어져 신인 작가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세련은 이에 기뻐하며 다음 작품들도 써보았지만 두개의 작품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세련은 슬럼프에 빠졌고 이를 위해 다양한 것들을 해보았다. 그리고 우연히 하게된 한 고등학교의 강연에서 국어 선생님인 ‘김진명’을 만난다. 김진명은 세련의 팬이었고, 강연 후 김진명은 세련에게 커피를 권했고 이후 대화를 나누었다. 세련과 명진은 대화를 하며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시작하여 서로에게 많은 공통점을 찾아내었다. 이후 연애를 시작, 결혼까지 하게된다.

이후 세련은 진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으며 새 책을 내게되고 첫 작품을 뛰어넘는 성공을 한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모리’와 ‘두리’라는 쌍둥이 자녀가 태어났다. 쌍둥이를 돌보며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두리’와 ‘모리’를 보며 힘을 냈다. 세련은 모리와 두리가 3살이 되었 때, 새로운 작품의 취재로 강원도에 가게된 세련은 약 10일간 바쁘게 자료조사를 하며 돌아다녔다. 진명이 휴가를 쓰기는 하였지만 10일은 넘길 수 없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준다고는 하였지만, 오랜기간 자녀들을 돌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피곤하고 바쁜 10일을 보내고 자료조사가 끝난 날, 하루 쉬고 내일 출발하겠다는 함께온 편집자는 세련에게 같이 하루 쉴 것을 권유했으나, 세련은 모리와 두리의 생각에 먼저 출발해보겠다고 한다. 걱정하는 편집자에게 ‘새벽이라 차도 없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세련은 먼저 출발한다.

그리고 고속도로, 세련은 자료조사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도 모리와 두리에 대한 생각을 하며 운전을 했지만 10일간의 힘든 취재로 인한 피곤으로 결국 세련은 졸음 운전을 하게된다. 그리고 차는 낭떠러지를 향해 버렸다.

### <김세련의 회상 끝>



하람에게 설명 할 때 세련은 안노을처럼 자신도 패닉에 빠졌었다고 전했었다.  
자신이 두고온 가정에 대한 죄책감, 절망감, 슬픔, 자신에 대한 분노 등으로 패닉에 있었고  
그런 세련에게 말을 건 것이 오정수라고 하였다. 세련은 오정수가 ‘바램’을 설명해주며  
자신을 설득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련은 자신의 바램으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행복’을  
줄 것을 결심하고 꿈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한다.

하람은 세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왔다는 점에서 무언가 기억이 나려  
하였다.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사람. 분명 설렘을 느끼고 애정을 느낀 것 같은  
사람이었으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았다. 같이 영화를 보거나 마주보고 누워있는 것  
등의 기억들이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얼굴과 이름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왠지 모를 자동차 경적소리가 순간 기억이 났다. 이것 외에는 기억이 나는 것은 없었다.

다시 현 시간대, 하람이 오정수에게 세련의 남편이나 자녀들의 꿈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제안해보았지만 ‘꿈의 규칙’ 중에 생전의 관계자와 연관이 되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고 하람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서 세련이 다시  
출근을 하였다. 노을과 하람이 먼저 인사하자 세련이 웃으며 인사를 하였다.

오정수는 돌아온 세련에게 평소와 같이 아재개그를 하며 말장난을 하였고 세련도 평소와  
같이 차갑게 반응하였다. 그런 모습을 보는 하람은 쓸쓸해 보이는 세련의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오정수가 출근하며 가져온 꿈의 의뢰를 시작하였다. 의뢰자는 ‘임신 7개월 차에  
들어간 29살 예비 엄마, 정슬기’였다.

프로필을 읽은 팀원들은 회상의 문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하람은 이전에 보았던 슬픈  
얼굴의 세련이 보였다.

#### <정슬기의 회상 시작>

정슬기는 26세로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께 사랑을 독차지 해오며 자랐다.  
늘 잘해주는 부모님에게서 불만없이 자라오다 결혼 전 전자쪽 대기업에 제작재료를  
납품하는 곳의 경리로 일하고 있었고, 거래처였던 대기업의 신입사원이었던 남편  
‘박시현’을 만나 연애 후 결혼을 하였다.  
데이트를 할때 늘 자신을 먼저 생각해부는 착한 시현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했던 것이었다.

이후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다 몸이 안좋은 날 병원을 가게되었고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을 알게되었다.

남편과 임신 계획은 없었지만, 남편은 슬기의 임신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해주었다. 슬기도 임신이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번도 마주해보지 못한 일에서 나오는 무서움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기쁜면이 있었고, 기뻐하는 남편에게 무섭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지는 않았다. 초기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는 못했지만, 슬기의 임신소식을 알게된 주변 사람들은 슬기에 대해 조심히 다뤄주었다.

직장에서도 슬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슬기는 바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은 어색했으나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다.

임신 3개월차에 들어선 슬기는 자신이 조금씩 변해감을 느꼈다. 가장 큰 변화는 점점 자신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과 기복이 심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 이유없이 슬프거나, 사소한 것에도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남편이 알아본 임신의 정보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같음을 알고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였지만 슬기는 본인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더 커져갔다.

슬기는 이후 4개월차에 출산 휴가를 내었다. 회사에서는 더 빨리 출산휴가를 권하였지만,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기에 미루었다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자 결국 출산 휴가를 낸 것이다.

당시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기에 남편이 출산휴가를 내기에는 힘든 점이 있었다.

남편은 슬기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슬기는 괜찮다고 하였다. 그렇게 슬기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임신 5개월차의 슬기는 본격적으로 태교활동과 아이를 낳을 준비를 시작하였다.

의사의 권고대로 운동을 하기도 하였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슬기의 남편도 되도록 퇴근을 빨리하여 슬기에게로 와 슬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슬기는 자신의 뱃속의 아기가 사랑스럽기도 하였지만 이따금씩 느껴지는 진통과 온몸에서 느끼는 고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임신기간이 길어진 만큼 감정기복도 심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신 7개월 차에 이르렀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그 중에는 이미 자녀를 둔 친구들도 있었기에 조언을 받기로 한 것이었다.

친구들에게서 자녀가 생김에 대한 좋은점과 나쁜점을 듣는 슬기는 점점 혼란에 빠졌다.  
매체가 아닌 친구로 부터 듣는 생생한 정보가 그만큼 현실적으로 들려와서 자녀를 낳는  
것과 낳은 이후의 삶에 대해 쉽지 않음을 느낀것이다.

집에 돌아온 슬기는 걱정에 잠겼다.

자신이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고, 이 후의 다가올 삶의 변화는  
짐작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까지 자신의 삶은 나름 만족스러웠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정슬기는 오늘도 걱정 속에 하루를 보낸다.

#### <정슬기의 회상 끝>

기획부의 인원들은 우선 기혼자이자 엄마였던 세련에게 의견을 물었다. 세련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도 비슷했다고 전한다. 이후 하람이 아이와의 행복한 생활을 꿈으로  
보여주면 임신에 대한 걱정이 들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노을은 ‘그렇지만 이후에 아이에  
대한 환상이 생겨 좋지 않은 생활이 되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수도 있다’며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세련은 잠시 고민한 뒤, 슬기의 부모님의 시점을 슬기에게 보여주자 제안한다. 슬기도  
부모님으로

태어났기에 그 입장을 알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최근 부모님의 기억이 되살아난 하람도 세련의 말에 동의했다. 자신이 있을 때만큼은  
싸우지 않으시던 부모님은 하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고, 하람에게는 싫은 표정을  
잘 안지으셨기 때문이었다.

하람과 노을이 동의를 하고 오정수도 그렇게 하자고 하여 본격적인 기획서 작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곧 연출부에게 기획서를 전달하였다.

#### <정슬기의 꿈 시작>

사진이 전시되어있는 전시장의 안, 천천히 걸으며 전시되어있는 사진들을 본다.

사진들을 보며 걷다보니 6살 남짓의 아이가 어머니의 등에 업혀있고 어머니는 방길을  
달리고 있는 사진이다.

자세히 보니 아이의 얼굴은 사과마냥 빨갭게 열이 오르고 있고 그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과  
함께 눈물이 흐르고 있다.

계속 해서 걸어본다.

이번에는 초등학교의 교실 안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춤을 추고 있다. 그걸 보는 학부모들 사이에는 아까의 어머니도 보인다.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아이를 보고 있고 그 옆에 아버지는 카메라로 아이를 찍고 있다.

자세히 보니 아이의 얼굴은 점점 정슬기를 닮아가고 있었다. 다음은 교복을 입은 정슬기가 어머니와 말싸움을 하고 있는 사진이다.

바로 다음 사진은 바닥에 떨어진 성적표와 가방, 아이돌의 포스터등을 밝고 정슬기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그런 슬기를 슬프게 쳐다보고 있다.

이번에는 학사모를 쓴 정슬기가 보인다. 양 옆 정슬기의 부모님이 찍혀있다.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한 말이 들려왔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있다.

‘어린 정슬기가 처음 걷는 사진’, ‘정슬기가 집 벽지에 크레파스로 낙서하고 환하게 웃는 사진’, ‘아버지의 라이터로 책에 불을 붙이고 우는 사진’ 등등 슬기를 중심으로 한 사진들이 전시장을 메우고 있었다.

마지막 사진, 침상 위에 부모님이 아기인 슬기를 안으며 울고있는 사진이 보인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닌 기쁨에 찬 눈물이었다. 고개를 내려 사진의 제목을 본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딸’

#### <정슬기의 꿈 끝>

편집이 마무리된 영상을 기획부가 함께 보면서 세련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람은 세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자녀일지, 자신의 부모님일지, 남편일지 몰랐지만 물어보지는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란게 무엇이지 잘 모르지만, 표현할 수 없을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후, 오정수로부터 정슬기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을 아무 이유없이 낳아준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신 역시 ‘낳아보자’라고 마음먹었다고 하며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엿한 부모가 되기위해 남편과 상의하는 시간을 늘렸다고 한다.

오정수는 하람에게 배우들에게 가서 인사도 할겸 음료수도 좀 사주라고 했다. 기획부에서 제시해준 ‘신(scene)’이 많았기 때문에 배우들이 고생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람은 알겠다면 사내 카페를 들린 후 배우들의 대기실로 내려갔다.

하람이 노크하고 들어가자 대기실에서는 다른 촬영 꿈의 촬영을 마친 배우들이 휴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람의 얼굴을 본 배우 ‘정진태’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하람은 심진태와 같이 일하는 동료배우들에게도 인사를 나누고 촬영에 대해 고맙고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진태는 하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태는 정슬기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람에게 어떤지 물어본다. 하람은 아직 그런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진태에게 진태는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했었는지 물었다.

진태는 생전의 배우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는 진로에 대한 선택도 인생에 대해 중요한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야기를 좀더 하다 인사를 나누고 하람은 기숙사로 돌아왔다.

기숙사로 돌아온 하람은 ‘진로에 대한 선택’이라 말한 진태의 말을 되새겼다. 그리고 하람은 학생의 기억과 일부 성인이 되었을 때를 떠올렸다.

고3 때 진로 고민으로 심리 상담사를 꿈꾼 것, 그것을 통해 대학교에 진학하여 했던 공부 등등이 었다. 마지막으로 하람은 자신이 대학병원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며 심리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로 인해 보람을 느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하람은 자신이 했던 일을 떠올렸다는 것과 지난번의 유년시절과 더불어 최근까지의 기억을 떠올렸기에 기억의 대부분을 되찾았다는 것에 기뻐했다.

하람은 잠들기 직전까지 자신이 상담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잠에 들었다.

## Part 6.5 : Get Along

오정수와 하람이 사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근 오정수는 하람과 이야기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람이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하람이 상담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최근에 하람이 기억의 대부분을 되찾으면서 초기의 하람이 가졌던 기억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아챘다.

오정수가 하람에게 ‘바람’에 대해서 물어보자, 하람은 자신의 기억이 아직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일하지도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진 ‘바람’이 없다고 대답했다. 반대로 하람이 오정수에게 바람을 물어보면 장난을 치고는 대답해 주지 않았다. 아직 오정수에게는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해 줄수 없기 때문이었다.

오정수는 기획부 회의실에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꿈 엔터테인먼트에 온지 20년, 생전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없었기에 과거를 찾고싶어하는 하람과의 대화로 최근 오랜만에 자신의 생전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 <오정수의 회상 시작>

오정수는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났다. 오정수의 조부모는 국회의원이었고, 부모님도 판사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엘리트’집안이었다. 부모님은 ‘엘리트’ 집안에 태어난 오정수에게도 ‘엘리트’를 강요했다.

오정수는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게 재미없었다.

학교와 과외를 반복하며 공부를 했고, 쉬는 시간 없이 ‘엘리트’집안의 자제로서 교육을 받았다.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이 안보는 곳에서는 거짓말로 만화방이나 당구장을 가거나 하는 등의 사소한 일탈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능글능글한 유머감각은 있어서 친구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는 못했다.

이따금씩 부모님에게 벗어나고 싶었지만, 오래전부터 지속된 부모님의 구속과 집안의 명예라는 말은 오정수의 용기를 억제하였다.

미국의 대학교에 합격하고 대학생이 된 이후로 자취를 하게 되면서 자유를 얻게되었다.

미국의 도시에서 오정수는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느끼며 놀았다. 2년을 신나게 놀면서 보낸 오정수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 부모님의 ‘아무도 모를 사정’으로 부대는 편한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오정수는 부모님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설명하며 이후에 있을 집안의 ‘이미지’로 설득하여 최전방으로 향했다.

사실은 부모님에게서 최대한 떨어지려 한 것이 이유였다.

전역 후 미국으로 돌아갔고 졸업을 앞둔 시점, 오정수는 교수와의 상담을 받게 되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말에 오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단 한번도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는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19년간 억압되어 부모님의 말만을 따랐고, 5년간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면서 살았지만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정작 고민을 안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대로 오정수의 자유가 막을 내렸다.

한국으로 돌아온 오정수에게 오정수의 부모님은 다시 ‘아무도 모를 사정’을 이용해 오정수를 한국 최고기업에 취업시킨다.

오정수는 ‘다시 새장에 갇힌 새’가 된 상황이 너무나 싫었다. 하지만 익숙했기에, 그리고 꿈이 없었기에 재미없는 생활을 반복하기로 했다. ‘누군가 내 삶을 끝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5년간 반복했고 오정수는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어이없게’ 사망했다.

사후세계에 처음 눈을 뜬 오정수는 은행처럼 보이는 창구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창구로 걸어갔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원이 하는 말을 들었다. ‘죽었다’라는 사원의 말에 오정수는 무덤덤했다. ‘아 나 심장마비로 뒤흔구나’ 하는 생각 뿐이었다. 그리고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도 있었다.

환생할 것이냐 물어보는 사원에게 오정수가 ‘적당히 그리 해주쇼’라고는 장난을 치며 웃었다.

다음 생은 좀 재미있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대기실에서 환생을 기다리던 중, 한 남자가 오정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건넸다.

셔츠가 터질듯한 근육이 인상적인 남자는 자신을 ‘꿈 엔터테인먼트 특별꿈부 기획과 과장, 박진권’이라며 오정수에게 명함을 건넸다. 오정수가 명함을 받자 진권이 오정수에게 꿈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해볼 것을 권했다. 오정수가 진권에게 5년동안 일해서 더 일하기 싫다고하자 진권은 오정수의 두 손을 잡았다.

‘다음 생에 재미있고 싶지않나? 여기서 일하면 바램을 한가지 들어준다네. 그 바램으로 다음생을 끝내주는 삶으로 만들어보는건 어떤가?’라며 오정수를 설득했다. 그리고 오정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여 진권에게 더 설명을 듣기로 하였다. 바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게된 오정수는 ‘확실하게 재미있는 삶’을 만들기위해 꿈 엔터테인먼트에서 몇년만 더 고생하기로 한다. 일하는 건 익숙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몇년을 보낼 생각만으로 가득찬 오정수는 꿈 엔터테인먼트를 돌아다니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사람들, 밝은 조명, 돌아가는 카메라와 소리치는 감독 등 꿈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금껏 열정없는 자신의 삶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었다. 그리고 오정수는 대충 보낼 생각을 고쳐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을 가진다.

오정수는 재밌었다. 기획부에서 일하면서 사연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촬영장에도 가며 열정적으로 일했다. 살아있었을 때 죽었있다고 느낀 자신이 죽어서야 살아있음을 느끼는 아이러니에 만족했다.

상사들이 바램과 환생을 위해 하나 둘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오정수는 진급을 했다. 오정수가 일한지 10년쯤 되었을 때 진권은 오정수에게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았고 오정수는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날 진권은 환생을 했다.

진권이 사라진 것은 놀랍지 않았다. 평소에도 장난식으로 ‘그만뉘야지’하던 진권이었기에 언제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권의 ‘바램’이 오정수를 놀라게 했다.

진권의 ‘바램’ 희망서에는 ‘여우같은 아내, 토끼같은 자식 셋만 주소. 적당히 행복했음 좋겠구먼’이라 짧게 적혀있었다.

진권이 오랜기간 일해온걸 알았기에 오정수는 동경하는 진권이 어떤 대단한 바램을 이룰까 궁금해왔었다. 하지만 대단하기는 커녕 너무나도 평범한 바램이 오정수를 혼란시킨 것이었다.

이후 오정수는 자신의 바램을 생각해보며 일에 몰두했다. 꿈을 만드는 일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바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좀처럼 오정수의 바램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더 흐르고 오정수는 자신의 바램을 무엇으로 할지를 잊어갔다. 몇명의 신입사원들이 오고 가고를 반복하면서 최근 두명의 사원이 환생을 하게 되어 새로운 사원을 뽑기위해 사망자들의 프로필을 보던 중 ‘기억을 잃은 남자, 정하람’이라는 프로필이 한눈에 들어왔다.

오정수는 갑작스레 ‘모든걸 포기했던 자신’과 ‘자신을 당겨준 진권’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기억을 잃은 정하람이 무슨 생각을 할 지는 확신을 못하지만, 기억을 찾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기억을 되찾게 되면 하람은 무슨 바램을 가질까’ 궁금하였다.

그리고 하람의 생전 일들을 읽어보았다. 그리고 분명 재미있을거라 느끼며 정하람을 데리러 갔다.

<오정수의 회상 끝>

‘앞으로 남은 기억도 조금인거 같아요’ 라는 하람의 말에 오정수는 하람을 바라보았다. 오정수는 생전의 하람을 알고 있었기에, 정말 하람의 기억이 조금 남아있음을 알았다. 오정수에게 생전의 기억은 무의미한 기억이었다. 그렇기에 ‘생전의 기억’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지는 않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하람은 이를 찾기위해 머리를 짜내고, 기억을 찾을 수록 기뻐하고 있었다. ‘별것도 아닌 것같아도 누군가는 기뻐하고 있다.’ 라는 생각과 함께 진권의 바램을 떠올렸다.

이후 오정수는 퇴근길, ‘바램’ 희망서를 한장 챙겼다. 그리고 20년간의 일을 슬슬 끝낼 준비를 해야한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 Part 7 : See You Again

자리에 앉아있는 하람은 생각에 잠겨 있다.

하람의 기억 중 부모님과 직업 등 많은 기억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기억의 틈틈히 보이는 ‘한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았다. 같이 데이트를 한 것같은 기억이 있어 분명 ‘연인’이라 생각하였지만 얼굴과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저 함께였다는 기억 뿐이었다.

이 일에 관해 노을과 세련에게 상담을 해보았지만 ‘곧 기억 날거니까 걱정마’라는 대답밖에는 받을 수 없었다.

분명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되었다.

머릿속의 많은 장면에서 같은 ‘여자’가 계속 나왔다. 그리고 알수없는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교차했다. 하람의 머리가 더 아파질때 즈음, 오정수가 출근하고 하람은 잠시 생각을 멈추고 일에 집중해서 잠시 머리를 식히기로 한다.

오정수가 콧노래를 부르며 의뢰자의 프로필을 돌렸고, 프로필에는 ‘83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도 떨어져 지내는 할머니, 유춘심’라 적혀 있었다. 프로필을 읽어본 기획부 팀원들은 회상의 문으로 향했다.

### <유춘심의 회상 시작>

봉사활동이 끝나면 유춘심은 혼자 40년전 남편과 함께 산 집으로 향했다. 허름해진 집이었지만, 애정이 있었기에 함께살자는 자녀들의 권유에도 집을 나가지 않았다. 거기에 함께살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어 쉽사리 자녀들의 권유를 받을 수는 없었다. 자녀들은 최소한 무리하지 말라며 유춘심에게 생활비를 보내었고 유춘심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소리없는 집에서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먹는다. 이따금씩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받으며 혼자의 외로움을 조금씩 달래기도 하였다. 가정을 가지게 된 자녀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음을 알았기에 일부러 집에 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다.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유춘심은 취미가 있었는데 집에서 앨범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사진찍기를 좋아했던 남편덕에 제법 많은 앨범과 사진이 집에 있었고, 유춘심이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시간을 보내기에도 적절한 취미였다. 이전에는 일기를 쓰는 취미가 있었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더이상 일기를 쓰지 않았다.

남편의 몸은 9년전부터 좋지 않아졌다. 하지만 늘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며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이따금씩 길거리에 주저 앉을 때도 있지만, ‘동전이 떨어져 있어서’라는 장난을 치고는 곧장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런 남편이 숨을 거둔 건 6년전이었다. 몸이 아픔에도 나이들어서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했던 남편은 가까운 산이라도 매일 같이 나갔다. 유춘심은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 매일 같이 따라 나서기도 하였다. 의사의 말로는 가까운 산책은 좋은 운동이라고 하여 말릴 수도 없었다.

그런 일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어느날, 아침이 되어 남편을 깨웠지만 남편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남편의 나이 90세였다.

유춘심은 남편이 오래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몇몇 나이가 어린 노인들보다도 오래 살았기에 잘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이가 가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이 돌아간 날, 유춘심은 인생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길게 울었다.

장례식 이후에 몇달이 지나 유춘심의 마음이 진정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권유한 것도 그때였다. 그렇지만 거절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유춘심의 이부자리에서는 남편의 사진이 보인다. 유춘심은 매일 잠들기전 남편과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잠이 든다.

#### <유춘심의 회상 끝>

회의실로 돌아온 인원들, 오정수는 유춘심을 자식들 걱정 안시키려는 좋은 어머니로 칭찬하였고 노을은 좋은 어머니이긴 하지만 혼자 안으려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한다. 하람은 지난번 노을과의 일이 있었을 때에 누군가 울고있는 모습이 기억난 것처럼 이번에도 누군가가 떠올랐다.

지난번 보다 선명한 장면으로 기억 속에서 툼툼히 보이는 여성이고 장소는 공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라는 장면이었다.

노을은 ‘라이브 드림’을 사용해 할아버지와 만나게 어떨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다. 잠시 생각해본 하람도 그게 좋겠다고 말한다. 이후 세련과 노을이 사후세계에 유춘심의 남편이 남아계신지 찾으러 갔다. 오정수와 하람, 둘만 남자 오정수가 하람에게 무언가 떠올랐는지 물어보자 하람은 점점 어떤 여성인지 확실히 알아가고 있다 설명해준다. 이후 오정수는 하람에게 기억을 모두 찾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하람이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환생 후 있을 ‘바람’을 계획해 볼 것이라 대답했다.

오정수는 ‘그래?’라 대답하고 잠시 말이 없다가 하람에게 평소의 아재개그를 했다. 하람은 그런 오정수에게서 무언가 평소와의 차이를 느꼈다.

이후 세련과 노을이 돌아와 사후세계에 유춘심의 남편이 남아있지 않음을 전했고, 대역을 세울 것을 제안하지만 오정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한다.

하람은 ‘일기’를 활용해 일기에 남아있는 할아버지와 추억을 다시 보여주자 제안했다.

노을이 지난날의 추억으로 기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남편분이 그리워 질 수도 있다고 하자

하람은 그렇기에 이 꿈이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 지난일을 덮고 일어나야

하는건 유춘심 할머니 본인이고 자신은 그런 할머니의 선택을 믿는다고 하였다.

노을과 세련은 고개를 끄덕였고 오정수는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하람의 안대로 기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기획서를 작성하며 유춘심의 일기장과 관련된 유춘심의 기억을 자료로 모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꿈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료가 모였다. 기획부는 그날 야근을 했고 다음날 다크서클이 진 하람이 겨우 연출부에 기획서를 건넸다.

#### <유춘심의 꿈 시작>

어두운 공간, 하나 조명등 아래 책상에 유춘심이 앉아있다. 그녀의 손에 일기장이 들려있고 책상의 옆에는 영사기가 있다.

영사기의 위에는 우체통같은 상자가 얹어져있다. 일기장을 피자 일기의 내용이 없고 사진이 한장 끼워져있다.

‘1960. 05. 22’라 써있는, 언젠가 앨범에서 보았던 흑백사진이었다. 유춘심이 사진을 꺼내 상영기 위에 상자에 넣자 영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퍼졌고 이후 상영기가 재생된다.

초기집 앞의 한복을 입은 두 남녀가 서 있다. ‘자 찍습니다. 신랑 신부 웃어보세요’라는 말에 두 남녀가 눈을 마주치며 웃는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소리가 퍼져울렸다.

이번에 핀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펴 ‘1964. 10. 05’이라 써있는 흑백사진을 상자에 넣었고 곧 영사기에는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다.

집에서 배가 부풀어 오른 여자와 그 배에 귀를 대고 있는 남자였다. 남자는 놀라며 ‘움직였어!’라 말한다. 여자는 그런 남자의 반응이 귀엽다는 듯이 웃는다.

이번에는 ‘1972. 06. 09’ 사진이었다. 운동회가 한창인 국민학교, 이어 달리기 중인 아이를 보고 갓난 아기를 끌어안은 여자와 남자가 한 아이를 응원하고 있다. 곧 아이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여자와 남자에게 뛰어와 안긴다. 남녀는 기쁜듯이 아이를 칭찬해준다.

‘1974. 01. 01’, 남녀의 앞에 아이 넷이 한복을 입고 서있다. ‘그래, 절 한번 해봐라’라는 남자의 말에 아이 넷이 서툴게 절을 한다. 남녀는 웃으며 봉투를 하나씩 건내고, 아이들은 봉투를 받더니 마냥 좋아한다.

‘1980. 08. 01’, 두아이가 울음을 참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바닥에는 인삼주를 담궜을 것으로 보이는 유리가 깨져있다. ‘위험하게 놀면 어떻게?!’하며 남자가 두 아이를 혼내고 있다. ‘이제 그만 봐주세요.’ 라고 여자가 말리자 남자는 고민하더니 ‘밖에 나가서 손들고 서있어!’라 소리쳤다. 곧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남자가 두 아이를 안으며 ‘네들 다치면 내 맘이 더 아프다. 다시는 이러지 말그라’ 라 말하며 이마에 입을 맞추어준다.

‘1990. 05. 19’, 정장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남녀가 어느덧 나이를 먹은 중년 앞에 서있다. 젊은 남녀가 중년의 남녀에게 절을 한다. 절을 받는 여자는 끝내 눈물을 터뜨린다. 유춘심은 수많은 날의 사진을 영사기 위 상자에 넣었다. 둘째 아들의 결혼, 첫 손주의 탄생, 셋째 딸의 대학교 졸업 등 수많은 추억 속에 자신과 자신의 남편을 보았다. 때때로는 웃고, 때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일기장을 넘기던 중 한 사진을 뒤로 더이상 사진이 없었다.

마지막 사진을 들어보니 ‘2014. 05. 22’라 써있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유춘심이 앨범에서는 본적없는, 남편이 스스로의 얼굴을 사진이었다. 유춘심은 사진을 상자에 넣었다.

‘이거 잘 나오나?’하는 말소리와 함께 곧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남편의 얼굴이 보인다.

남편은 헛기침을 한번하더니 ‘남자, 잘 지냈는겨?’라 말하고 이후 남편은 먼저가서 미안하다로 시작하여 당신과 보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고 소중했는지 설명한다. 설명을 하는 남편의 얼굴은 점점 처음 만났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비록 백년가약은 끝날것 같지만 다음생에도 다시 날 만나주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라 말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영상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않은 일기장과 돌아가는 영사기 소리만이 울려퍼지고 있다.

<유춘심의 꿈 끝>

하람은 이후 각부서를 돌아다니며 유춘심의 꿈 제작에 고마우며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기로 하였다. 인사를 돌리며 마지막으로 편집부 부장인 ‘조민아’에게 도착했다. 조민아는 하람과 함께 유춘심의 꿈을 돌려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민아는 유춘심을 보며 ‘본인은 외롭지만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눈치가 없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기에 유춘심의 자녀였다면 큰일이었을 것이라 말한다. 유춘심의 영상을 보던 하람은 유춘심의 다양한 기억들로부터 자신의 기억속 의문의 여성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한장면씩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민아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그러게요. 저도 눈치가 없어서 해늘에게 상처를 준것 같아요.’라 답한다.

조민아가 ‘해늘’이 누군지 묻자 자신이 무슨말을 했는지 깨달은 하람은 ‘해늘’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려보았다. 그리고 곧 자신의 기억 속 계속해서 나타난 여자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처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중학교에서 만나 죽는 순간까지 보았던 ‘해늘’이라는 존재와 자신이 왜 죽었는지까지, 많은 기억들이 하람에게 떠올랐다.

하람은 곧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편집부를 뛰어나가 기획부로 향했다. 그리고 기획부의 문을 열어 기억이 모두 돌아왔다면 소리쳤다.

하람의 말에 노을과 세련이 축하한다며 어떻게 떠올랐는지,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는지 물어본다.

하람이 들떠있는 얼굴로 둘에게 마지막까지 기억나지 않았던 여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해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노을과 세련의 질문과 하람이 대답이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오정수는 미소를 띄고 있었다.

이후 퇴근 준비를 하던 하람에게 오정수가 와서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하람도 오정수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다. 오정수가 없었다면 기억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함을 표현하던 하람에게 오정수는 자신은 한게 없다 말한다. ‘만족하고 있어?’ 라는 오정수는 질문에 하람이 그렇다며 대답하자 ‘다행이네’ 하며 웃었다. 그리고 뒷정리를 하겠다고 퇴근하는 하람에게 ‘잘가’라는 인사를 했다. 하람이 퇴근하고 오정수는 아무도 없는 기획부를 돌려보고 자신의 서랍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다음날 노을과 세련, 하람은 기획부에 찾아온 양선화 감독으로부터 오정수가 환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

## Part 0 : Dearboy

하람의 눈앞의 부모님이 싸우고 계신다. 하람은 익숙한 듯 장난감을 손에 들고 애써 싸움을 보지 않는다.

싸움의 이유는 자신 때문이다. 부모님은 ‘애를 어떻게’로 시작하는 말들로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닌걸 하람도 알고있다.

언젠가 하람의 어머니는 싸움의 원인이 ‘하람’이 아니라 ‘성격차이’라고 들은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싸움의 원인인 것에 어린 하람은 죄책감에 빠졌다. 그리고 어느날 우연히 수학 시험을 100점 맞은 날, 부모님이 싸우지않고 자신을 칭찬해주는 날이 있었다.

그리고 하람은 그날부터 자신이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되었다.

이후로 하람은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 운동, 공부부터 시작해 집에서는 집안일을 돕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도왔다.

부모님의 싸움은 최소한 하람이 있는 곳에서는 점차 없어져갔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한 덕분에 선생님과 친구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되었다. 하람은 자신의 노력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보람이자 행복임을 초등학교때 알게된 것이다.

중학생이 된 하람은 역시 열심히 하였다. 반항심이 자라나는 사춘기에도 자신의 행동이 ‘행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신의 사춘기 감정을 억눌렀다. 하람은 그렇게 ‘특이한 학생’이 되었다.

웃음을 잃지 않았고 남을 도왔다. 어느날은 일부 친구들이 하람의 성격을 이용해 청소를 빠지거나 다른 일들을 하람에게 미루는 일이 일어났다.

하람은 그럼에도 그 친구들이 행복하다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몇몇 친구와 선생님이 그런건 확실히 거절해야한다고 말했지만, 하람은 괜찮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던 중 2학년이 되었을 때 한 여자아이에게서 ‘눈치없다’라는 말을 처음 듣게된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해늘로 반에서 조용하고 말없는 아이였다. 도서관에서 부원을 하고 있던 박해늘을 돕고자 했던 하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책을 꽂아넣어서 화가난 박해늘이 하람에게 ‘눈치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람에게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처음있는 일이었다.



고맙다는 말만을 들어온 하람은 ‘눈치없다’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몇일간 이 고민을 한 하람은 자신의 행동이 꼭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람은 이번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그리고 하람은 막연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알고, 도와주어야 할 행동을 파악하는 ‘눈치’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후의 하람의 눈치있는 도움은 주변으로부터 더 고맙다는 말을 잘 듣게되었다.

이로 인해 더 자신의 행동에 보람을 가지게된 하람이었다.

하람의 인기가 올라갔다.

3학년인 하람에게 주변에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더 좋아졌다.

그런 하람은 ‘눈치’를 알게해준 해늘에게 눈이 갔다. 3학년이 되어서도 같은반이 된 해늘과 하람, 하람이 반에서 친구들과 떠돌고 있어도, 운동회를 하여도, 어느순간에도 해늘은 조용히 무표정으로 혼자 책을 읽을 뿐이었다. 하람은 오기가 생겼다.

그리고 해늘이 웃는 모습을 보기위해 해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였다. 하람을 ‘눈치 없는 애’로 기억하고 있는 해늘은 하람의 행동을 귀찮은 듯한 태도로 대하였다.

하람은 그런 해늘의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해늘이 도서관에 가면 따라가서 해늘이 읽고있던 책을 읽으며 공감대를 만드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눈치있게 도서관의 일을 도왔고 이외에도 해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하람을 보았고 그런 하람에게 관심이 생긴 해늘은 하람에 대한 귀찮아했던 자신의 태도를 조금씩 고치기 시작하였다.

반에서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더라도,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서 둘은 ‘친구’가 되었다.

졸업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해늘이 처음 웃음을 보였고 하람은 지금까지 느꼈던 우정과 다른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된다. 이 후 둘은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다.

고등학생의 하람은 중학생 시절에 비해 더 바쁘게 되었다. 여전히 반 친구들과 선생님에게서 인기가 좋았고, 반장까지도 하게되었다. 그리고 하람의 부모님이 하람에게 학업에 대한 기대도 하게되어 학업에도 집중해야했다.

그래도 방과후 도서관은 여전히 약속 없이도 만나는 둘이 만나는 공간이었다.

때때로는 도서관을 나가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을 가는 등,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비록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하람은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였다. 몇번 고백을 받기도 하였지만, 해늘을 생각하고 고백을 모두 거절하였다.

하람은 그렇게 3학년이 되었고 진로의 고민 앞에 섰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게 자신의 행복이었던 하람은 자신의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였다. 좋아하는 해늘이 경영학과를 간다고 하였지만 하람은 자신과 경영학과는 맞지 않는다 생각하였다. 고민하던 하람은 자신이 방학때 봉사활동을 가게된 종합병원에서 만난 심리 치료사를 떠올렸다

심리 치료사와의 대화에서 심리치료를 통해 사람들이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을 듣게 되었고 매력있는 직업이라 생각하였었다. 그 때를 떠올리며 하람은 타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여 진로를 심리치료사로 선택한다.

그리고 하람은 해늘과 같은 대학교인 C대학교의 '심리학과'에 들어가게 된다. 대학교에 들어가 1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공부를 하던 하람에게 대학교는 재밌는 공간이었다. 고등학생에 비해 해늘을 만날 시간도 늘어나 만족하던 하람은 21살이 되어 군대에 들어가게된다.

군대는 힘들지만 싫은 공간은 아니었다. 훈련은 다같이 힘들었고 선임과 간부의 잔심부름도 타인을 위해 힘써온 하람에게는 별 것 아닌 일이었다. 하지만 매일같이 만나던 해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하람에게는 가장 큰 함뚎이었다.

하람은 해늘을 매일같이 보았기 때문에 외로움을 잘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21개월이란 시간은 하람에게 있어 고통이었다. 그리고 하람은 한가지 결심을 한다. 전역날에 하람은 마중나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해늘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해늘을 동네의 공원으로 불러 고백을 했다. 해늘이 눈물을 보이며 사귀자는 대답을 하였고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다.

하람은 학교에 복학하고 학업에 매진했다.

자격증 공부와 봉사활동, 시험과 아르바이트로 시간은 없었지만 틈틈이 해늘을 만났고 스스로 생각하길 부지런하고 보람찬 학교생활을 보냈다. 해늘은 졸업 후 1년을 더 자격증 공부와 취업에 매진했다. 4학년이 된 하람은 졸업시험과 자격증의 준비로 바쁘게 되었고 졸업후에는 평소 열심히 하는 하람에게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학병원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람과 해늘, 모두 사회의 초년생들이었기에 결과적으로 해늘과 하람은 각자의 일로 만나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기에 하람은 해늘을 만날때 만큼은 못해준만큼 더 잘해주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하람이 일하며 있었던 일이나, 상사에게 칭찬받은 일을 말할 때 해늘의 표정은 웃었지만 어두워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람이 몇번 힘든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해늘을 보며 무리하게 마음 아픈 일을 말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고,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날, 해늘은 공원에서 눈물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눈물에 하람은 놀라 해늘을 달래본다.

하지만 어떻게 달래도 해늘의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달래는 해늘에게 흘리며 ‘눈치채줘’라는 해늘의 말에 하람은 당황한다.

자신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지 말하는 해늘과 그걸 묵묵히 듣던 하람, ‘왜 말해주지 않았냐’는 말에 해늘은 ‘너를 힘들게 하기 싫었다’ 라고 말하며 둘은 말싸움을 하게되고 그대로 해늘은 ‘더 싸우기 싫어’라 말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갑작스러운 해늘의 행동에 놀란 하람은 집에 돌아와 최근의 해늘에 대해 생각한다. 최근에 들어서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눈치있다고 생각한 행동이 오히려 해늘을 더 힘들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 하루동안 하람은 생각에만 잠겼다. 하람은 생각이 끝나고 침대에서 일어나 해늘에게 전화를 하며 밖으로 나섰다.

첫 만남때처럼 눈치없이 해늘을 생각해 주지 못한것,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것 등 하람은 최근의 자신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할말이 있다는 해늘이 공원으로 나와달라는 말을 꺼냈다. 공원으로 달려가는 하람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해늘이 바쁜 자신을 위해 힘든 기색을 안했지만, 연인으로서 기대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공원으로 달려가는 하람의 눈에 공원 내 가로등 아래있는 해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늘의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이 하람의 마지막이었다.

## Part 8 - 1 : officially missing you

기획부의 회의실, 양선화 감독이 오정수가 환생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획부의 인원들은 갑작스러운 오정수의 환생에 당황하며 이유를 묻지만 양선화 감독도 자신은 이유는 모른다고 하며 곧 기획부 회의실을 나갔다. 기획부의 인원들은 충격에 잠겨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하람은 오정수가 왜 환생을 했는지 생각해보았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다. 세련과 노을을 바라보았을 때에도 자신과 같은 생각인 것처럼 느꼈다.

이후, 꿈 엔터테인먼트의 인사부원이 와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오정수는 유춘심의 꿈이 기획되기 전날 퇴근길, 환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의 바램 희망서가 수리되어 환생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하람은 현재 오정수가 어디있는지 인사부원에게 물었고 인사부원은 오정수가 현재 환생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하람은 회의실을 뛰어나갔다. 오정수가 평소 오정수가 장난을 치는 모습과 자신을 위로해주는 모습, 그리고 환생 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사의 복도를 달려 자신이 사후세계에 처음왔던 창구로 향했다. 줄이 서있는 사람들, 하람은 처음 자신에게 죽음을 알려주었던 창구 직원에게 향했고 환생 대기실이 어디임을 물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원은 어쩔줄 모르며 하람을 말렸지만 하람이 진심어린 말로 부탁하자 곧 환생 대기실을 알려주었고 하람은 말을 듣고 환생 대기실로 뛰어갔다.

환생 대기실은 공향과 같았다. 의자들과 심사대, 그리고 그 옆에는 안쪽이 밝게 빛나는 '환생의 문'이 존재했다.

하람은 오정수를 오정수를 찾으려 돌아다녔지만, 그런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쳐다볼 뿐 오정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곧 이곳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2명이 와 하람을 제지하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했다. 하람은 오정수를 찾아야한다며 소리쳤지만, 묵묵히 끌고 나가는 사람들을 제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오정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하람이 뒤를 돌아 오정수가 서있었다.

잠시 시간을 내달라는 말에 하람을 끌고가려던 사람들이 뒷짐을 지고 섰다. 눈물을 머금은 하람은 오정수에게로 가서 그를 안았다. 그리고 왜 환생을 하는지 물었다.

오정수는 하람의 등을 토닥여 주며 대답했다.

하람을 보며 옛 상사를 떠올린 것, 기억을 찾으며 드라마틱하지 않은 삶에도 감동하는 하람을 본 것, 이번 환생의 삶을 타인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서 개척해 보고 싶은 것. 평범하게 살며 평범하게 감동해볼 것 등등 오정수는 자신이 환생을 선택한 이유를 말해주었다.

곧 이곳의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오정수와 하람에게 다가와 이제 가야할 시간임을 알려주었고, 하람은 다시 끌려가기위해 붙잡혔다.

아직 할 얘기가 많다는 하람을 뒤로 오정수가 손을 흔들며 ‘환생의 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한 후 ‘환생의 문’으로 들어갔다.

몇일간 특별꿈의 기획부는 인수인계에 들어갔다. 세련이 오정수가 남겨놓은 부장 인수인계서를 정독하며 부장으로서 해야할 일들을 공부했고, 세련의 자리는 부원들의 논의 끝에 노을이 대신하는 걸로 되었다. 오정수의 빈자리로 하람이 대리의 자리는 못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인수인계가 어느정도 끝나고 각자의 자리를 바꾸고 새로운 사원을 뽑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 회의실의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정수의 책상 서랍에 있는 3개의 서류봉투와 편지 한통을 발견한다

세련이 대표로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다.

같이 일해주어서 고마운 것, 갑자기 환생해서 미안한 것 등등의 내용들이 적혀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각각의 서류봉투에 세련의 자녀, 노을의 부모님, 그리고 하람의 여자친구인 해늘의 프로필과 카드를 담았고, 오정수의 ‘바램’으로 꿈의 규칙을 한번 어겨 관계자들의 꿈을 만들도록 하였다는 말이 적혀있었다. 편지를 읽은 셋은 서로를 안고 오정수를 그리워하며 한참을 울었다.

잠시 후 세련은 하람의 여자친구인 해늘의 꿈을 먼저 해볼 것을 제안했다. 세련과 노을은 오정수의 빈자리로 하람이 가장 힘들어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하람은 잠시 생각할 시간이 달라 부탁했다.

사내 기숙사에 돌아온 해늘은 오정수가 남긴 서류봉투만을 바라보았다. 오정수에 대한 생각과 함께, 해늘과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하람은 죽기 직전 해늘에게 하고픈 말과 듣지 못한 말이 남았기에 해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하람은 해늘이 무슨말을 하고싶었는지 생각해보았다. 사과를 받아준 것일지, 헤어지자 하려는 것일지 궁금했다.

하람은 해늘의 프로필이 담긴 봉투를 집었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곧 오정수와 만들어본 꿈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하람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는 자신에게도, 해늘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하람은 용기를 내고 봉투를 열었다. 다음날, 세련과 노을은 하람에게 생각이 정리되었는지를 물었다. 하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둘에게 ‘남자친구를 잃은 27살의 여성, 박해늘’이라 적힌 프로필을 건네주었다.

잠시후, 프로필을 다 본 둘이 하람을 쳐다보자 하람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고 함께 꿈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다. 세련과 노을은 기꺼히 그러겠다 대답했고 세련과 노을, 그리고 하람은 ‘회상의 문’앞에서 섰다. 하람이 카드를 인식시키자 문이 열리고, 셋은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갔다.

#### <박해늘의 회상 시작>

해늘은 엄격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좋은 성적과 예의바른 행동을 요구하였고, 해늘은 그에 따랐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적과 상장을 받아와도 해늘의 부모님은 해늘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저 더 잘하라는 말만 한다. 이러한 유년시절을 보낸 해늘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의미 없다는 가치관을 가져버리고, 학우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보내게 된다. 그렇기에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단순히 읽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일들을 접한다는 점에서 책을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후 해늘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1학년부터 학교의 도서부원으로 지원한다.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아 조용한 것,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어서였다. 2학년이 되고 어느날, 학교의 활동으로 도서관을 사용하는 시간이 있었던 탓에 도서관의 책이 많이 어질러져 있는 상황이 일어났다. 해늘은 딱히 신경쓰지는 않았다. 묵묵히 책의 자리에 찾아 원래 위치에 꽂던 중, 같은반의 남학생, ‘정하람’이 도서관에 들어왔다. 하람은 선생님의 부탁으로, 도서부원을 돕기로 하었다고 전했다. 평소 해늘은 하람을 귀찮은 아이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에서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이지만 눈치가 없는 하람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해늘은 신경쓰지 말고 그냥 가도 된다는 말을 계속 했지만 하람은 해늘이 거절해도 도와주겠다며 보이는 책들을 아무 자리에 꽂아 넣기 시작했다. 그런 하람의

태도에 해늘은 눈치가 없냐며 화를 냈고 하람은 미안하다며 주눅든 상태로 도서관을 나갔다. 그리고 해늘은 혼자 책을 정리하며 자신이 너무 심했던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몇일 뒤, 해늘은 반에서 하람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았다. 눈치없었던 행동들이 눈치를 가져갔다. 해늘은 자신 때문에 하람이 바뀐 것인지 궁금했으나, 곧 이는 자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며 하람에게서 신경을 끄기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해늘은 자신과의 만남 이후 변한 하람을 남몰래 눈을 쫓았다. 3학년에서는 해늘과 하람은 같은 반이 되었고, 하람은 반에서 인기가 많았다. 해늘은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다.

한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람이 해늘에게 더 자주 말을 거는 것이었다. 해늘은 자신이 심한 말을 했음에도 말을 거는 하람이 신기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하람이 귀찮기도 하였지만 다시 마음의 상처를 줄 것 같은 예감에 해늘은 하람을 무뎌뎌하게 대하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눈치있게 자신을 돕고, 자신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하람에게 해늘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자신의 태도를 고치기 시작했다.

졸업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늘은 하람을 친구로 인식했고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같이 보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해늘은 하람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과는 말을 잘 섞지 않았다. 하람과 다른 반이 되었고, 하람은 반장이 되었기 때문에 해늘은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곤 했다. 방과후에는 도서관을 통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해늘은 하람을 잘만나지 못해지며 쓸쓸했고, 하람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렸다.

하루는 하람의 반에 여자아이가 도서관에 와서 해늘에게 하람과의 관계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해늘은 '친구'라고 답했고, 여자아이는 그렇다면 하람에게 고백하겠다 하였다. 해늘은 하람이 고백을 수락할 까봐 걱정이 되었다. 하람에게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자신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해늘은 어느샌가 자신이 하람을 좋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3학년, 해늘은 진로의 방향을 앞두고 부모님으로부터 경영학과를 가라는 얘기를 듣는다. 해늘은 이에 반대 해 자신은 글을 쓰고 싶어 국어국문학과에 가고 싶다고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자신의 뜻대로 살 생각이면 집을 나가라며 부모님이 화를 냈고 해늘은 아무말없이 혼날 뿐이었다.

그렇게 해늘은 C대학교의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된다. 그나마 해늘에게 위로가 된건 하람과 같은 학교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년뒤 하람이 군대를 가게되고 해늘은 다시 혼자 남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에는 하람과 떨어질 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하람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기에 해늘은 하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전화기를 붙잡고 그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평소에 하지않던 SNS를 이용해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휴가때에나 가끔 볼 수 있었기에 해늘은 하람에게 고백 해 볼것을 생각해보았지만, 학생시절 자신이 주었던 상처처럼 다시 하람에게 상처를 줄 자신은 하람과 연인이 될 수 없다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람의 전역, 하람이 해늘에게 고백하였고 해늘은 더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다.

4학년이 되고 해늘은 취업준비를 하였고, 복학한 하람도 바쁘게 학교를 다녔다. 해늘은 부모님의 뜻대로 졸업후에도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며 1년을 더 보냈다.

이후 해늘은 아버지의 연을 통해 호텔의 경영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직장내에서 해늘은 ‘낙하산’이라며 따돌림을 받았다. 학생때에는 친구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부터 상사와 동료들이 직접적으로 따돌림을 하자 해늘의 스트레스는 늘어갔다.

이제는 서로 사회생활을 하게되어 만날 시간이 줄어든 하람을 만날 때, 하람은 자신이 직장에서 겪은 일들을 말했지만 직장에서 행복해보이는 하람의 모습은 해늘에게 있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고 슬프게 할 뿐이었다.

해늘은 자신이 겪는 일에 대해서 하람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다.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바쁜 하람에게 더 신경쓸 거리를 하나 늘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람이 걱정하면 괜찮다고는 대답했지만 어렴풋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랬다. 그렇지만 하람은 그런 해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날, 해늘은 공원에서 눈물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눈물에 하람은 놀라 해늘을 달래본다. 하지만 어떻게 달래도 해늘의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달래는 해늘에게 흘리며 ‘눈치채줘’라는 해늘의 말에 하람은 당황한다.

자신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말하는 해늘과 그걸 묵묵히 듣던 하람, ‘왜 말해주지 않았냐’는 말에 해늘은 ‘너를 힘들게 하기 싫었다’ 라고 말하며 둘은 말싸움을 하게되고 그대로 해늘은 ‘더 싸우기 싫어’라 말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돌아온 해늘은 분명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하람에게 화를 냈다며 후회했다. 하지만 하람에게 전화한다면 헤어진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쉽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 잠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라앉히려 사과를 하기위해 전화를 하려는 순간, 하람에게서 전화가 온다.

해늘이 전화를 받자 하람이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하람의 사과에 자신의 잘못임에도 사과는 하람이 하게하는 해늘은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졌다. 해늘도 사과를 하려 했으나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사과와 함께 자신이 처한 일을 말할 생각으로 하람을 공원으로 불렀다.

그리고 해늘은 공원을 뛰어갔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하람에게 말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함께 해결할 생각이었기에 해늘의 마음은 들떠있었다. 하지만 하람은 해늘을 보기 직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 Part 8 - 2 : Happy ending

하람의 사고원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였으나 해늘은 하람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상을 보냈다.

‘만일 그날 하람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면, 하람을 공원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등등의 생각으로 해늘은 일을 손에 잡을 수도 없었다. 상태가 심해져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되었고 한동안 집에서 울음으로 시간을 보냈고 더이상 울음이 나오지 않고 감정을 모두 상실한 상황에 이르렀다.

해늘의 부모님은 그런 해늘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늘은 집을 나와 독립을 하기로 하였고 이전과는 다른 호텔의 경영부에서 일을 시작했다.

해늘은 학생때 보다도 더 주변인물들과 거리를 두었다. 하람에 대한 일을 떠오르면 너무나 슬퍼지는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고, 타인과의 관계를 가지게되면 또 자신이 상처입힐까 두려워 냉철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하람의 생각으로 다시 슬픔에 잠겼다. 직장의 남자동료에게 고백을 받기도 하였지만 전부 거절하였다. 해늘은 이런 자신의 삶을 짊어져야할 죄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언젠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낼 것을 생각했다.

### <박해늘의 회상 끝>

회의실로 돌아온 하람은 해늘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현재 저런 해늘을 모습을 자신이 만들었다며 주저앉아 한탄한다. 세련과 노율이 하람의 탓이 아님을 말했지만, 하람은 해늘의 삶과 저런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자책한다. 세련과 노율이 위로해보았지만 하람이 계속 상태가 똑같자 노율이 하람의 뺨을 때리며 지금 해야할 일에 집중하자 한다.

당황하여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하람에게 세련이 해늘에게 ‘미래로 나아갈 의미’를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냐 말했다. 노율도 그 말에 동의하며 하람에게 손을 건넸다.

세련의 말에 하람은 오정수를 떠올렸다. 분명 오정수도 이를 알고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율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다. 하람은 세련과 노율에게 한심한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 전하고 기획을 시작하자고 한다. 하지만 기획회의가 시작되고 하람은 자신이 어떻게 해늘에게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도 자신의 꿈으로 해늘이 더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자 세련은 하람에게 직접 해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떨겠냐며 ‘라이브 드림’을 제안한다.

노을도 이 말에 동의하지만 하람은 자신이 해늘을 만나 이야기할 용기가 없고 무슨 말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다 한다.

그러자 노을은 다시 하람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해늘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느냐 묻는다.

하람은 절대로 아니라며 해늘이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소리쳤다.

그런 하람을 보고 노을은 웃으며 그 마음 그대로 전하면 된다 이야기한다.

노을의 말을 듣고 하람을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짐한듯 ‘라이브 드림’을 하겠다 한다. 셋은 이후로 더 기획서를 작성하고 양선화 감독에게로 향했다.

양선화 감독은 하람의 기획서를 받아 보고는 가장 먼저 ‘오정수의 바램’인지 물었고 하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양선화 감독은 기획부 인원들의 꿈 기획이 온다면 무조건 만들어달라는 오정수의 부탁을 받았기에 ‘라이브 드림’을 해주겠다고 답한다. 그리고 하람에게 후회하지 않겠냐며 물어보았고 하람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양선화는 좋은 자세라며 당장 ‘라이브 드림’을 준비하자 말했다.

얼마후 꿈의 세계, ‘박해늘님’의 문을 열자 촬영 준비가 한창이다. 배경은 하람이 죽은 후 해늘이 절대 가지 않는 공원의 밤이었다. 구석에서 하람은 사고가 났던 날 그대로 분장을 하고 있다. 노을이 다가와 어떨냐고 묻자 하람은 솔직히 여전히 무섭다고 한다. 노을이 걱정하지 말고 하고싶은 말 다해보라고 하자 하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에는 세련이 잘해보라며 응원했고, 다른 스태프들도 화이팅이라며 하람을 응원했다.

그리고 양선화 감독의 촬영 준비라는 말에 스태프들은 모두 제자리로 향했고, 하람도 공원의 가로등 아래 서서 해늘이 꿈을 꾸길 기다렸다.

#### <박해늘의 꿈 시작>

해늘은 눈을 뜨자마자 경악했다.

하람을 잃었던 공원은 해늘에게 있어 지옥과도 같았다. 그리고 제발 그만하라며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그 자세를 하던 해늘은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림을 느꼈다.

천천히 귀에서 손을 떼고, 눈을 뜬 해늘의 앞에는 그날의 하람이 서있었다. 해늘은 놀라면서 정말 하람이 맞는지를 묻는다. 그렇다는 하람에 대답에도 해늘은 몇번 더 정말 하람인지를 물었다.

하람은 노을이 좋아했던 책 제목, 첫키스 장소 등을 이야기하고는 정말 하람이 맞다 대답한다.

해늘은 하람을 안으며 울음을 쏟아냈다. 해늘은 울음을 그치며 하람이 죽는, 정말 안좋은 꿈을 꾸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며 하람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러자 하람이 해늘의 어깨를 잡고 끌어 해늘의 두눈을 바라보고는 자신이 죽은게 맞다며 말한다.

해늘은 제발 장난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람은 해늘이 꿈을 꾸고 있음을 말했다.

해늘은 하람의 눈을 바라보다 그렇다면 이것도 악몽이라며 빨리 자신을 깨워달라한다. 그리고는 쓸데없는 희망을 주지 말라며 하람의 밀쳐낸다. 하람이 다가가려 하자 해늘은 가까이 오지말라고 하고는 이 꿈에서 깬다면 자신도 하람을 따라갈 것이라 소리쳤다.

해늘의 말에 하람은 자리에 서서 자신이 하고싶은 말이 있다 말이 있다 전했다. 해늘은 더이상 말하지 말라며 소리쳤지만, 하람은 묵묵히 자신의 말을 꺼냈다.

자신이 죽는 날까지, 해늘의 마음을 몰랐고 알려하지 않았다는 것, 해늘이 말해주기를 기다린 것, 자신 때문에 해늘의 미래를 망친것 등등에 대해 사과하며 하람은 해늘에게 한걸음씩 다가갔다. 해늘은 다가오지 말라며 소리쳤지만 하람의 한마디마다 눈물이 나고 있었다.

하람이 해늘의 바로 앞에 섰고 해늘은 하람에게 기대에 왜 하람이 사과하냐며 울기 시작했다.

하람은 자신을 잊지 않고 살아주어 고맙다고 전하자 해늘은 하람을 절대 못 잊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순간부터 고백한 순간, 모든 순간들이 자신에게는 외로웠던 자신에게 있어서 축복이었다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해늘은 축복이었던 하람이 없어 더이상 살아갈 수 없다 말하며 다시 하람을 끌어안는다.

하람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지쳐, 과거를 추억하고, 꿈을 꾸고 있어. 꿈은 꿈일 뿐, 현실이 되어주지 않지. 지났던 시간도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꿈과 과거를 통해 현실은 바뀔 수 있고 그로 인해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어떤 학생은 자기가 변할 용기를 받았고, 어떤 아빠는 현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예비 엄마는 세상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준비하고, 한 아이는 자신의 미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너도 나를 한편의 꿈처럼, 한편의 추억처럼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살았으면 해.

그리고 너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서 한 할머니처럼 다음생에 나에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해주라.’

해늘이 고개를 올려 하람의 얼굴을 보았다. 하람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있었지만 하람의 얼굴은 행복해보였다.

해늘은 하람없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람은 해늘이기에 가능하고 해늘만이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해늘을 믿는다며 해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해늘은 더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다가온 이별을 눈치챘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냐고 묻는 해늘과 그렇다고 대답하는 하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곧 공원의 가로등은 불빛을 잃는다.

<박해늘의 꿈 끝>

신입사원의 입사로 특별꿈 기획부는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각 재벌집에서 태어나 아가씨로 살아온 신입사원과 열정만으로 살아왔으며 스스로를 사나이로 부르는 남자 신입사원이었다.

노을은 인사부에서 왜 특수꿈과로 배치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복잡해보이는 심정의 표정을 지었다. 신입사원들을 데리고 회사를 돌아다녀 피곤해보이는 상태였다.

하람은 지난 프로필들을 정리하고는 노을에게 사내 카페에서 커피를 건넸다.

세련은 하람에게 정말 해늘의 현재를 안들어도 되겠냐는 말을 꺼내지만 하람은 괜찮다고 한다.

해늘을 믿고 있기에, 그리고 언젠가 들려줄 이야기의 스포일러를 미리 듣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자리로 돌아온 하람은 책상 서랍에서 오정수가 남겨놓은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다.

하람은 그리고는 편지와 같이 묶어둔 종이를 펼쳤다. 그 종이에선 하람의 ‘바람’리스트가 적혀있었다.

하람은 아직 온전히 바람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자신이 환생의 순간이 다가오면 이루고 싶은 바람을 하나씩 적어두고 있었다. 곧 회의실에 문이 열리며 세련이 들어왔고 프로필을 돌렸다.

프로필을 읽은 기획부 인원들은 회상의 문 앞에 선다. 하람은 소매를 걷어올리며 문의 안쪽으로 들어간다.

-끝-